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정부주도 산업단지와 산업도시의

형성과 변천 특성

-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업기지를 중심으로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 영 재

정부주도 산업단지와 산업도시의 형성과 변천 특성

-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업기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막 중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 영 재

김영재의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1960년대 경공업 산업단지를 통한 수출 중심의 전략으로 발전을 이룩해 냈던 대한민국은 1970년대 들어서 기존의 경공업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국각지에 중화학공업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기존 경공업단지와 새롭게 건설된 중화학공업단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래 존재 하던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해 경공업단지를 유지했던 과거와 다르게 중화학공업단지에서는 공업단지를 위한 도시를 새롭게 건설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공업단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새로운 형태의 중화학공업단지를 대표하는 창원기계공업단지를 비교하여 경공업단지인 마산에는 도시가 계획되지 않았는데 중화학공업단지인 창원에는 도시가 건설된 이유에 대하여 파악하고 두 도시에서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산업구조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마산과 창원은 건설배경부터 산업의 특징, 계획과정 등 모든 면에서 차이점을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두 지역 변천의 가장 큰 요인들로 작용했다. 첫째,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던 지방기업가들과 정부의 지방공업화의 결과로 건설되었지만 창원기계공업기지는 당시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 마산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영향을 받아 건설되었다.

둘째, 이와 같은 건설배경은 산업단지의 특징에도 영향을 미쳐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미혼여성공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창원기계공업단지의 경우는 숙련노동공 위주의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로 운영되게 된다.

셋째, 두 지역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큰 차이점을 보인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을 중심으로 상공부, 수출산업공단, 마산시에서 계획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입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국무총리산하 중화학공업단지추진위원회가 중심

이 되어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지방공업개발법(1970), 산업기지개발 촉진법(1973), 공업배치법(1977), 지방공업개발법(1977) 등 다양한 법제의 지원을 받아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건설된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달랐던 건설배경과 산업의 종류 그리고 계획과정은 도시의 형성과 변천에도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경공업단지로 성장했던 마산의 경우는 국내 경공업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만 숙련노동력의 안정된 공급과 유지가 가능했던 창원외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의 주도로 건설된 도시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원했던 그 전략에 대하여 평가하고 편중된 산업구조가 갖게 되는 구조적 약점에 대하여 지적할만한 근거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마산과 창원의 두 가지 사례만으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전부를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의 경공업단지와 중화학공업단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 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경공업, 중화학공업, 산업도시, 계획도시

학 번 : 2015-24804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4
3. 용어의 정의	5
1)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정의	5
2) 산업공단의 명칭	7
II. 이론적 고찰	8
1. 산업단지는 왜 건설되었는가?	8
2. 산업단지에서 산업도시로의 확장	11
III. 마산의 형성과 변천	13
1. 마산자유무역지구의 건설배경	13
1) 지방기업가들의 영향	13
2) 지방공업화의 영향	14
2.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의 산업	17
1) 생산품목	17
2) 근로자의 특징	23

3.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계획	29
1) 법규	29
2) 조성기관	32
3) 소요예산	33
4) 사업규모	34
4. 마산 도시의 변천	36
1) 산업구조	36
2) 인구구조	43
5. 소결	48

IV. 창원외형의 형성과 변천

1. 창원기계공업기지의 건설배경	49
1)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49
2) 마산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영향	52
2.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산업	53
1) 생산품목	53
2) 근로자의 특징	58
3. 창원기계공업기지의 계획	64
1) 법규	64
2) 조성기관	67
3) 소요예산	70
4) 사업규모	74
4. 창원 도시의 변천	78
1) 산업구조	78
2) 인구구조	86
5. 소결	93

V. 결론	94
1. 연구의 결론	94
2. 연구의 한계	95
참고문헌	96
부록	99
ABSTRACT	107

표 목 차

<표 3-4>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업종 별 수출실적 추이	22
<표 3-5>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주요내용.....	30
<표 3-6> 수출자유무역설치법 개정내용.....	31
<표 3-7>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기관.....	33
<표 3-8> 마산임해공업단지 예산 계획.....	34
<표 3-9> 마산임해공업단지 계획면적.....	35
<표 3-10> 마산수출자유지역 연도별 현황.....	36
<표 3-11> 1974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업종.....	38
<표 3-12> 2016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업종.....	38
<표 4-1> 1970 - 1980 국내총생산 (명목GDP).....	51
<표 4-2> 창원국가산업단지 연도 별 총 입주업체.....	53
<표 4-3> 창원국가산업단지 연도 별 생산, 수출, 고용추이.....	54
<표 4-4> 창원기지 내 공장건설 계획.....	54
<표 4-5> 1974년 1차 입주기업 생산품목.....	55
<표 4-6> 1978년 입주업체 현황.....	57
<표 4-7> 창원기계공업기지 장기인력 수급계획.....	60
<표 4-8>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	60
<표 4-9> 창원기계공업기지 노동자 연령비율.....	62
<표 4-10> 창원기계공업기지 기술교육기관.....	63
<표 4-11> 우리나라 산업단지관련 주요 법률.....	65
<표 4-12> 산업기지개발촉진법.....	66
<표 4-13>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조성 기관.....	68
<표 4-14>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70
<표 4-15> 창원기계공업기지 부대비 세부내역.....	72
<표 4-16> 창원기계공업기지 부대비 확보계획.....	73
<표 4-17>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면적 계획.....	76

<표 4-18> 마산과 창원외 산업단지 계획정리.....	77
<표 4-19> 창원 기계공업기지 연도별 현황.....	79
<표 4-20> 2012 창원국가산업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황.....	80
<표 4-21> 1980년대 창원기계공업기지 업체의 변화.....	81
<표 4-22> 1980년대 창원기계공업기지 생산총액의 변화.....	82
<표 4-23> 창원기계공업기지 업체 수 변화.....	83
<표 4-24> 창원기계공업기지 고용인원의 변화.....	86

그 립 목 차

<그림 2-1> Capello (1999)의 산업단지 발전과정	12
<그림 3-1> 마산지구 개발 기본계획	16
<그림 3-2> 동양중공업 백지화	16
<그림 3-3> 마산수출자유지역 남녀비율	23
<그림 3-4> 1970년 마산 인구 피라미드	25
<그림 3-5> 1975년 마산 인구 피라미드	25
<그림 3-6> 1980년 마산 인구 피라미드	26
<그림 3-7> 마산 시가지의 변화	27
<그림 3-8>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	35
<그림 3-9> 마산수출자유지역 업체수의 변화	39
<그림 3-10> 마산수출자유지역 근로자수의 변화	39
<그림 3-11> 마산수출자유지역 수출액의 변화	40
<그림 3-12> 마산수출자유지역 업체 당 근로자수의 변화	41
<그림 3-13> 마산수출자유지역 1인당 수출액의 변화	42
<그림 3-14> 마산 인구변화	43
<그림 3-15> 마산 평균연령의 변화	44
<그림 3-16>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	45
<그림 3-17> 마산의 인구피라미드	46
<그림 3-18> 마산 성비의 변화	47
<그림 4-1> 20조원의 청사진부상	50
<그림 4-2> 1978년 입주업체 현황	57
<그림 4-3> 이주노동자 출신지역	62
<그림 4-4> 산업기지개발공사 현판식	69
<그림 4-5> 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 안경모	69
<그림 4-6>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기본구상도	76
<그림 4-7> 1980년대 창원기계공업기지 업체의 변화	81

<그림 4-8> 1980년대 창원기계공업기지 생산총액의 변화.....	82
<그림 4-9> 창원기계공업기지 업체의 변화.....	84
<그림 4-10> 창원기계공업기지 고용인원의 변화.....	85
<그림 4-11> 창원 인구변화.....	87
<그림 4-12> 창원 인구변화율.....	87
<그림 4-13> 창원 성비의 변화.....	88
<그림 4-14> 창원 평균연령의 변화.....	89
<그림 4-15> 창원 인구 피라미드.....	9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960년대 대한민국은 경공업 중심의 수출전략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경공업단지를 건설했다. 그 중 하나가 1970년 건설된 마산수출자유지역이다. 1970년대 들어서 정부는 기존의 경공업 산업단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산업을 기존의 수출중심 경공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의 주도로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결과 창원에는 거대 기계공업단지가 건설된다. 과거와 다른 점은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 안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도시를 새롭게 건설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먼저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이 건설된 배경, 산업단지의 산업적 특징과 계획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산업이 마산 도시의 변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창원 기계공업기지의 건설 배경과 산업단지의 산업적 특징, 계획적 특징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그것과 비교한 후 창원기계공업기지가 창원 도시변천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경공업단지인 마산에는 도시가 계획되지 않았는데 중화학공업단지인 창원에는 도시가 건설된 이유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노동력에 대한 비교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마산의 노동력은 미혼 여공위주의 비숙련 노동공, 창원의 노동력은 젊은 남성위주의 숙련 노동공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 이후 산업단지 계획의 차이를 비교하여 마산에는 비숙련노동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창원에는 숙련노동공의 중요성으로 그들의 유지와 교육을 위해 후방도시를 건설했음을 증명할 것이다.

두 번째로, 두 도시에서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산업구조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배경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봉암동에 위치한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성산구 외동 일대에 위치한 창원국가산업단지 일대이다. 연구의 대상지로 창원시의 두 지역을 선정할 이유는 이 두 지역이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인접해있어 다른 조건들을 통제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1970년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74년부터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마산과 창원의 인구를 비교할 때 사용한 기준은 2016년 현재의 행정구역이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할이 빈번했기 때문에 같은 지명에 대한 통계자료라도 서로 같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1974년에는 창원군의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내서면, 구암리, 회성리, 합성리, 두척리가 마산시에 포함된다. 1980년에는 기존의 마산시의 일부가 창원시로 분리되고 창원군은 의창군으로 개명된다. 2010년에 들어서는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가 통합되며 통합 창원시로 재편성되는 등 복잡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다(김정대, 2014).

본 연구에서는 비교하는 행정구역의 크기를 동일하게하기 당시의 통계 자료를 현재 지명에 맞게 새롭게 분류했다. 따라서 현재의 지명이 확립된 1995년 이전의 행정구역에 대한 자료는 당시의 자료를 현재의 행정 구역 크기에 맞게 재구성 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2) 시간적 범위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은 1969년 6월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된다. 창원에 중화학공업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된 것은 1973년 9월이었다. 따라서 두 산업단지의 건설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1969년 마산임해공업단지조성계획부터 1973년 시작된 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 창원기계공업기지건설계획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마산과 창원지역 산업단지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여 도시에 영향을 끼친 기간인 1970대부터 2016년 현재까지 산업과 인구의 특징을 비교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업기지 지역을 비교하는 정성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첫째,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마산임해공업단지계획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중화학육성추진위원회와 마산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분석했다. 보강자료로 국가기록원의 산업단지관련 사이트와 대통령기록실의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했다.

둘째,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과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을 분석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논문과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신문 기사를 인용했다.

셋째, 두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보기위해 마산수출자유지역25년사, 마산수출자유지역조사보고서, 동남공단 20년사, 마산수출자유지역 가동실태조사, 창원기지 5년사, 창원기지 15년사 자료를 사용했으며 부족한 자료는 다른 논문과 신문기사에서 획득했다.

마지막 부분인 창원과 마산의 도시 비교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부족한 자료의 보완을 위해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윤한욱씨와 창원기계공업기지에서 4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 익명의 한OO씨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전문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정의

대한민국의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1963년 경제기획원의 통계국이 표준산업분류체계를 만들었고 이 후 국내의 산업구조 및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현재는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99가지 산업을 분류하고 있고, 이 중 제조업관련 업종은 23개로 나누어 분류되고 있다.¹⁾

제조업에도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나 크게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부문의 중분류 업종에 따라 경공업제품(169개 품목)과 중화학공업제품(448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표 1-1>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분류를 나타내는데 경공업은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섬유(C13), 의복 및 목피(C14), 가죽 및 신발(C15), 목재 및 나무제품(C16), 인쇄 및 기록매체(C18), 고무 및 플라스틱(C22), 가구(C32), 기타제조업(C33)으로 분류되고 중공업은 펄프 및 종이(C17), 석유정제(C19), 화학제품(C20), 의약품(C21), 비금속광물(C23), 1차 금속(C24), 금속가공(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C26), 의료정밀(C27), 전기장비(C28), 기계장비(C29), 자동차(C30), 기타운송장비(C31)로 분류된다.²⁾

경공업은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이 단순하고 간단한 과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반면 중화학공업의 경우는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무게나 부피, 산업과 산업 간 밀접한 연관관계 등 때문에 막대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³⁾ 그러나 일단 중화

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설, <kssc.kostat.go.kr/ksscNew_web/revision001.pdf>

2) 나라통계,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11&inputYear=2016>>

학공업중심의 산업이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경공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생산효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생산성을 보이게 된다(Kim, 2007).

<표 1-1> 대한민국 제조업중분류

제조업 (10-33)	산업 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경 공 업
11. 음료 제조업	경 공 업
12. 담배 제조업	경 공 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경 공 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경 공 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경 공 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경 공 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경 공 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중 화 학 공 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경 공 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24. 1차 금속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중 화 학 공 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화 학 공 업
32. 가구 제조업	경 공 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경 공 업

출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통계청

3) 강상훈,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해설, 법제처,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js?sessionId=GC7SIEvdK5Bijpk5mtaIRH96yfCBj70OVrxCKudJsA8Jsn3AOY1iNk7Vxg71CHQi.moleg_a2_servlet_engine2?yr=1974&mn=01&mpbLegPstSeq=125427>

2) 산업공단의 명칭

마산의 산업공단은 마산지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969년 4월 3일 대통령의 승인 하에 계획된다. 마산지구는 낙동강 하구 구역인 마산, 진해 및 지금의 창원지역을 모두 포함한 넓은 지역이다. 그러나 약 두 달 후인 6월 19일, 기존의 계획에서 현재의 마산공단부분만을 남겨두고 대폭 축소화되어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다. 이 지역은 건설이후 1970년 1월 1일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거 줄곧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불려왔으나,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역, 물류, 유통,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⁴⁾ 본 연구에서는 건설 당시의 이름인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창원의 산업공단은 1973년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이 후 1976년 9월에 지방공업 장려지구로 지정되면서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 개칭되었고, 1976년 12월에는 1,416만평으로 확장되고, 1977년 12월에는 1,670만 평으로 확장 조성되어 창원종합기계공업단지로 불리게 된다. 1997년 1월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통합되며 현재의 명칭인 창원국가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다.⁵⁾ 본 연구에서는 창원기계공업기지라는 초기의 명칭으로 통일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https://www.ftz.go.kr:30443/kor/manIntro/History/history.jsp>>

5) 한국산업단지공단 e-cluster, 산업단지통계,
<https://www.e-cluster.net/new_app/indust/stat/danji_stat_list.jsp?BOARDNO=10109>

II. 이론적 고찰

1. 산업단지는 왜 건설되었는가?

최초의 산업단지는 1800년대 이후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생겨나게 된 영국의 제조업 단지들이다. 제조업 산업단지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한 명의 장인이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세분화된 단순 작업에 노동자를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노동자당 생산은 증가시키고 생산에 필요한 비용은 줄어들게 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으며 이와 같은 공장들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서 집적의 경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산업단지들의 주변에는 노동자들이 몰려 도시가 생성되거나 기존의 소도시들의 규모가 확장 되었다. 1900년대까지 소규모 도시들이었던 영국의 맨체스터, 버밍햄, 글라스고우, 리버풀 등이 산업화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한 이러한 도시에 해당된다(O'Sullivan, 2007).

산업단지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Alfred Marshall에 의하여 시작되었다(Belussi & Caldari, 2009). Marshall의 저서 Principles of Economics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지역화 산업(Localized Industry)'에서 시작하여 여러 산업체가 집적한 '산업단지(industrial district)'로 변화하게 된다(Marshall, 1920). 이러한 전환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Marshall의 집적이론을 연구한 Belussi & Caldari(2009)에 따르면 Marshall이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역화 산업은 기후, 토양, 광산과 광석에 대한 접근성 등 주로 물리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이 산업집적지의 관리를 위해 이주하게 되는 귀족들에 의해 성숙되게 된다. 사치품을 필요로 하는 이들 집단의 특성으로 지역 내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이에 따라 외부에서 기술을 가진 장인 계층이 이주하여 지역 내에 기술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화 산업은 중·소규모 도시주변에 생겨나게 되는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도시가 커지고 산업의 규모 역시 점점 커지는 선순환의 흐름을 갖게 되며 안정화 되는 과정을 거

친다. 이렇게 커지고 안정화 된 지역화 산업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갖게 되고 비로소 산업단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Marshall이 정의한 산업 단지의 특징은 지역 내 기술의 전수, 부자재의 지역 내 공급의 증가, 고도로 특화된 조직, 특수기술에 대한 지역 내 지속적 수요, 산업적 리더십, 혁신 등이다 (Belussi & Caldari, 2009).

이러한 산업단지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산업단지가 없을 때 보다 산업단지가 형성되었을 때의 편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David Newlands(2003)는 산업단지에 관한 연구를 크게 6가지로 구분했다. Alfred Marshall로 대표되는 캠브릿지 학파의 집적이론(1890), Allen Scott과 Michael Storper가 주도한 캘리포니아 학파의 신산업공간론(new industrial district) (Scott & Storper, 1986; Scott, 1988; Storper, 1989), 이탈리아의 산업을 설명하기 위한 유연적전문화론(flexible specialization) (Brusco, 1982; Piore & Sabel, 1984), 유럽의 GREMI학파의 혁신환경론(innovative milieu) (Aydalot & Keeble, 1988), 그리고 제도와 진화 경제학(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economics) (Nelson & Winter, 1983; Amin & Thrift, 1992; Amin, 1999)가 그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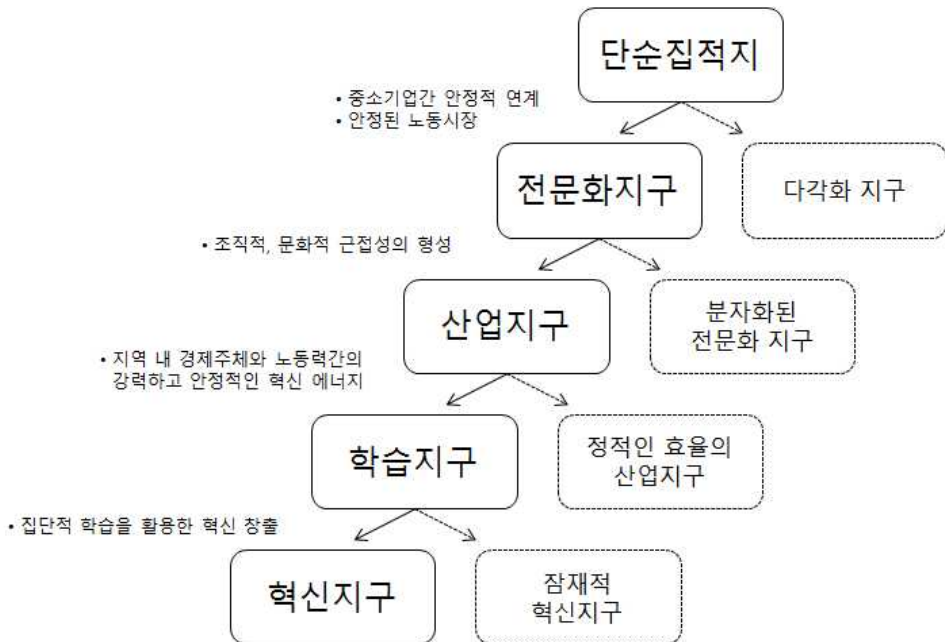
<표 2-1> Newlands(2003)의 산업단지 이론 비교

	산업단지 편익의 요인	집적유발 요인	경쟁과 협력	정책적 함의
집적이론	노동력, 구조, 사업, 하부서비스, 공공재, 공유	외부 경제는 서비스로 국지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경우 극대화됨	집적지내 기업 간 경쟁에 협력을 통한 우위를 창출	공공재의 공급이 시장이 제공하는 것보다 많을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
신산업 공간론	집적에 기초한 거래 비용 절감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래비용 절감 효과는 커짐	협력이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만, 협력이 지나치게 강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시장에서 클러스터의 거래를 촉진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유연적 전문화론	집적지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호혜적 정보 교환	신뢰는 지리적으로 집중된 네트워크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	집적지내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가깝다는 것은 품질에 기초한 경쟁을 하며, 상호간 협력관계가 존중됨	사회적 네트워크가 신뢰 구축에 이끔하지만, 제도적 틀을 확립해야 함
혁신환경론	혁신 창출을 위한 환경의 혁신성 강화	혁신에 기여하는 제도와 관행은 부분적으로 개인적 접촉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리적 접촉이 공간 단위에서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짐	경쟁적 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	산.학.연 네트워크의 초점을 높여야 함
제도 및 진화경제학	집적지내에서 제도적 기반	특정한 진화 과정은 다양한 규범에서 발생할 수 있음	기술변화를 경쟁우위로 인식	혁신 궤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정책 개입은 하나의 결정 요소에 불과하다고 봄

출처: NewLands, 2003; 이종호 외, 2008 재인용

2. 산업단지에서 산업도시로의 확장

산업단지의 발전과정에 대한 개념적 정리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왔다. 특히 Capello(1999)는 혁신환경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산업단지의 체계화된 발전과정의 틀을 제시했는데 각각의 산업발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Capello가 제시한 발전단계에서 산업단지는 단순집적지, 전문화지구, 산업지구, 학습지구, 혁신지구로 변화하게 된다. 산업의 단순집적지에서 전문화지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 간에 안정적 연계가 있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된 노동시장이 존재해야한다. 이러한 조건이 없을 때 단순집적지는 다각화지구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고 더 이상의 발전은 없게 된다. 전문화지구가 산업지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조직적이고 문화적 근접성이 형성되어 지역 내의 아이디어와 기술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야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없을 때 전문화 지구는 분자화되어 산업지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지역화 산업이 산업단지로 변화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설명했던 Marshall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내 경제주체와 노동력간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혁신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학습지구로 발전하게 된다. 만약 지역 내에 혁신 에너지가 부족할 때에는 산업단지는 단순히 산업지구의 역할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지구의 형태에서 혁신지구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학습을 통해 지역 내의 혁신 에너지를 경제적 이익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아이디어를 도구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모델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Capello, 1999).



<그림 2-1> Capello (1999)의 산업단지 발전과정

출처: Capello, 1999; 황주성 외, 1999 재인용

Capello의 산업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대상지를 설명하면 마산의 경우 역사적으로 제조업 산업이 발달하여 단순집적지의 형태에서 전문화 지구를 거쳐 마산수출자유지역이라는 산업지구의 형태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내 혁신에너지의 부재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적인 효율의 산업지구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반면 창원외의 경우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창원기계공업기지를 건설할 때 이 지역에 주거·교육 기능을 결합한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본래 자연발생적이게 발생하는 단순집적지, 전문화지구, 산업지구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발생 시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마산과 창원지역의 산업단지와 도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와 같은 태생적 차이점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도시에 대한 산업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III. 마산의 형성과 변천

1. 마산자유무역지구의 건설배경

1) 지방기업가들의 영향

마산지역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조선공업과 함께 철 공업이 성장하여 호황을 누렸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군수공장으로 전환되어 활기를 띤 지역이었다. 해방 이 후에도 이 지역의 조선, 기계공장들은 한국 전쟁당시 후방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경남 공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 1961년 마산시내에는 160개의 제조업체가 가동되고 있었고 업종의 종류는 섬유, 기계, 주정, 요업, 광업, 기타공업 등이었다(박배균, 최영진, 2014). 따라서 마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공업단지 건설이라는 부분에서 지역주민, 기업체의 높은 이해도가 있었고 또한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1966년 당시 마산지역에 임해공업단지 유치요구를 이끌었던 사람은 재일교포 손달원이다. 당시 야마토제관과 신일본공기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재벌 손달원은 마산지역에 동양중공업이라는 종합기계공장을 기존의 마산, 창원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마산시 행위자들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했다.⁶⁾ 손달원이라는 주도적 인물과,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던 토착기업가들과 주민들의 영향으로 마산에는 1966년 11월 11일 산업단지 부지확보를 위한 매립지를 조성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다. 이 공사는 정부지원금과 마산시 자금 총 15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1969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었다.⁷⁾

6) 매일경제, 기계공장설립 내자조달위해 50%는 현금차관, 1966. 07.09

7) 매일경제, 39개공장의 부지, 1966. 11. 12

2) 지방공업화의 영향

건설부 승인으로 1969년 매립공사가 완료되고 곧 바로 마산지역에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이 시작되었다. 이는 1960년대 후반 시작된 지방공업화 열풍의 도움이 상당수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당시의 지방공업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자.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60년대에 이미 국가단위의 공업육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말 각 지방도시에서 개발 붐이 일어나게 된다. 각 시·도의 주도적 역할과 지방 토착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붐이 지방도시까지 확산되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분양이 먼저 완료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시·도 차원에서의 산업단지 개발 붐으로 연결되었다.⁸⁾ 1966년 4월 13일 경향신문 기사는 당시의 고조되던 개발 붐을 잘 묘사하고 있다.

“공업의 지방 분산과 농촌공업화 사업이 정부와 업계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박대통령이 여러 공업 분산 입후보지에 들러 정부계획을 말했고 각 경제단체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민간산업지방분산 및 유치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기사에서는 또한 농촌공업화가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지역을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는 특산물 육성을 위해 합천의 완초를⁹⁾ 비롯, 충무에는 해외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나전칠기, 의령의 한지, 창원·통영·고성의 굴 통조림을 생산하여 한 해 동안 1백 24만 5천불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이다.”

8) 국가기록원, 산업단지개발, 1960년대 산업단지 개발의 시작,
<<http://theme.archives.go.kr/next/industry/special1960.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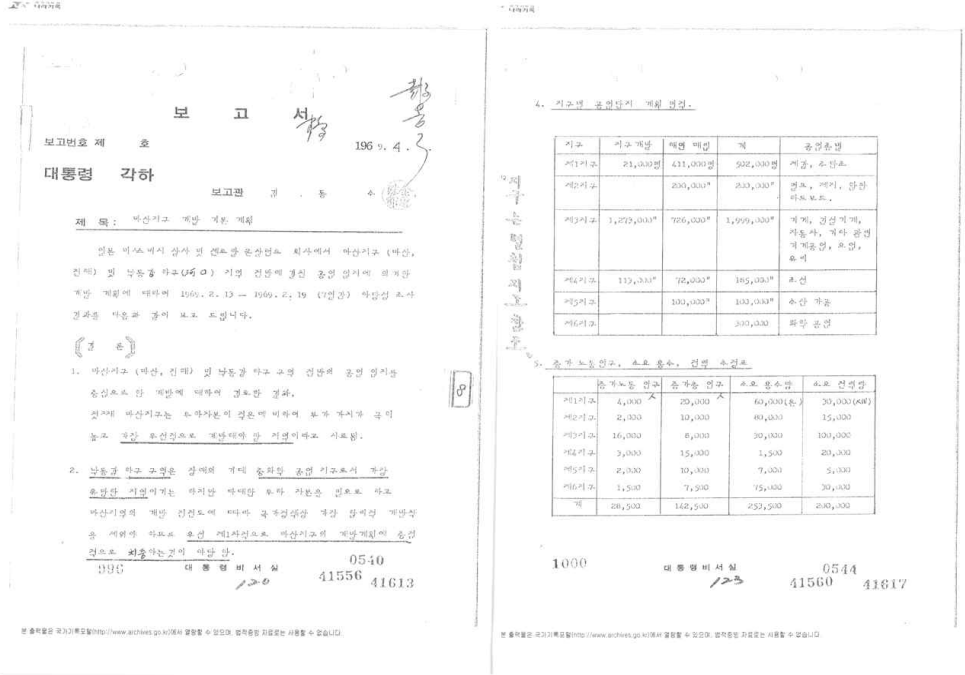
9) 화문석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수공업품이 경남지역에서 주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당시의 공업이 아직까지는 경공업위주의 제조업을 의미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마산에 임해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상공부에서는 일본 미쓰비시 상사의 센트럴 컨설턴트에 의뢰를 맡겨 ‘마산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때 마산지구(현재의 마산, 진해, 창원지역) 및 낙동강 하구 지역 전반에 걸친 공업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림 3-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산지구는 투자자본이 적는데 비하여 부가가치가 극히 높고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해야할 지역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낙동강 하구 구역을 장래의 기대 중화학 공업 지구로써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산지구 개발 기본계획은 마산지구를 여섯 개의 지구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제1지구는 현재의 마산수출자유지역이 들어선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의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건설된 지역이다(최영진, 2014).

아이러니하게도 최초사업을 주도했던 손달원의 동양중공업은 자금 확보에 문제가 생겨 1968년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이 취소되게 된다.¹⁰⁾ 이에 정부는 본래 계획안을 축소하여 제1지구인 지금의 마산자유무역지역의 40여만 평만을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으로 발표하게 된다(최영진, 2014). 약 1년간의 1차 조성공사를 진행한 1970년 마산임해공업단지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10) 동아일보, 종합기계백지화. 1968.08.09



<그림 3-1> 마산지구 개발 기본계획
출처: 국가기록원, 마산지구 개발 기본계획, 1969. 4. 3

三益 株五現の이面 萬織터

제「차五개年計劃上 重要事業의 하나로 推進되었던 綜合機械工場건설계획은 당초 事業主로 선정되었던 동양重工業(代表孫達元)속의 事業推進부진으로 뒤 소되어 다시 原點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九 經濟企劃院(국자는

경우 株主配當은 二〇% 내지 二五%로 내다보인 다.

의 資本金五十億원을 一百億원으로 増資토록 하는 同公社設置法中 改定案을 의결했다.

經濟長官會議는 公社의 對外信用度를 높이기 위해 一十億원으로의 増資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동양工業』계획취소로 日 동양重工業의 工場건설계획이 政府계획과 맞지 않아 취소된 것이나 政府는 금년간 이를 實需要 充에게 공식통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동양重工業은 外貨三千六百五十萬달라와 內資十 三億八千七百萬원을 투입, 工作機械製造工場을 오 는七〇년까지 馬山에 세울 계획이었다.

『소不要』

綜合機械백지化

<그림 3-2> 동양중공업 백지화
출처: 동아일보, 종합기계백지화, 1968. 8. 9

2.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의 산업

1) 생산품목

상공부 내 정부관계부처의 실무자와 민간경제단체 소속 사람들은 1970년 2월 마산수출자유지역조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예상입주업종을 결정하고 각종 지원 사업계획을 만들었다(이상원, 2008). 이 보고서에는 입주 장려할 기업들의 종류를 <표 3-1>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분류산업기준표에서 중화학공업에 속해있는 품목들이 약 43.8%, 경공업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약 45.7% (기타 10.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설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기업들은 중화학공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

<표 3-1>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종계획

업종	구성비 (%)	산업 분류
전자제품류	25.0	중 화학공업
의류(봉제)	17.1	경 공업
경편직물	12.4	경 공업
합성수지제품	5.6	중 화학공업
금속제품류	5.0	중 화학공업
전기기기	4.0	중 화학공업
인조가발	3.9	경 공업
공예품류	3.8	경 공업
완구류	1.6	경 공업
피혁제품류	1.5	경 공업
포장재제조류	1.2	경 공업
광학기류	1.1	중 화학공업
기계기류	1.0	중 화학공업
약기류	1.0	경 공업
여행 및 운동용구류	1.0	경 공업
인쇄(종합)	0.9	경 공업
정밀기류	0.9	중 화학공업
가구 및 장식품	0.8	경 공업
고무제품류	0.7	중 화학공업
의료 및 과학기기	0.5	중 화학공업
직조 및 염색류	0.5	경 공업
기타	10.5	경 공업

출처: 상공부, 수출자유지역조사작업반,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사보고서, 1970, 재가공

1970년대의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업체들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였다. 1970년 4개의 업체가 입주를 결정한 이래 입주업체는 꾸준히 증가하여 1974년에는 1970년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98개의 업체가 가동을 하게 된다. 이 후 1970년대 후반에는 입주업체 및 가동업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1차 석유위기로 불거진 전 세계적 불황의 영향이다. 1973년 3/4분기까지 배럴당 2달러를 유지하던 석유가격은 197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접경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¹¹⁾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선진국들이 금수조치를 단행하면서 1974년에는 10달러, 1975년에는 11.51달러로 폭등했다.¹²⁾

<표 3-2> 1974년 마산수출자유지역 가동업체

업종	업체 수	비율 (%)	평균투자액 (\$)	산업 분류
기 계 기 구	20	22.5	738,5000	중 화 학 공 업
전 자	20	22.5	1,428,600	중 화 학 공 업
화 공	12	13.5	596,667	중 화 학 공 업
금 속	10	11.2	1,193,700	중 화 학 공 업
섬 유	6	6.7	255,000	경 공 업
전 기	4	4.5	635,000	중 화 학 공 업
광 학 기 기	4	4.5	614,250	중 화 학 공 업
기 타	13	14.6	261,231	경 공 업
합 계	89	100.0	813,056	경 공 업

출처: 국가기록원, 대통령비서실, 마산수출자유지역 가동실태조사, 경제 제1부, 보고번호 제64호, 1974.7.22., 재가공

따라서 석유파동의 영향이 미치지 직전인 1970년대에서 가장 활황기라고 할 수 있는 1974년의 가동업체들의 산업종류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초기 업종 현황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1974년 입주업체들의 산업의 종류를 보면 <표 3-2>와 같다.

<표 3-1>의 1970년의 예상입주업체종과 비교하여 실제 입주에서는 예상보다 섬유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전자회사들과 화학회사들이 채웠다. 그 이유는 입주업체들이 1973년 시작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11) 제4차 중동전쟁. 욘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한다.

12) 동남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 중화학공업의 시작과 미래: 동남공단 20년사, 1996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육성 정책 초기의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설비를 갖춘 공장들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이를 답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규모를 살펴보자. 이들 업체의 투자액은 5만 달러에서 440만 달러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으로 약 81.3만 달러 수준이었다.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당시의 공장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이상철, 2008). 이런 소규모 공장들로는 국가에서 원했던 규모의 중화학공업관련 산업들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의 공장들은 법적인 기준으로는 중화학공업에 속해있었지만 대부분은 다른 지역의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부품을 만드는 노동집약적인 생산에 집중하는 중소기업들이었던 것이다. 1974년 초 조사된 자료에서는 74개의 입주기업 중 60% 이상이 노동자 수가 200인 이하의 기업이었고, 그 중 28개 기업은 100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이었다(허은, 2014).

<표 3-3> 1974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주 생산품목

업종	업체명	생산품목	가동개시일
광 학 기 기	韓國共榮眼鏡	선그라스, 안경	1972-01-31
	(주)와코	카메라 및 카메라 용 렌즈	1973-05-21
	新韓工業	마이크로필름리더	1973-06-04
	韓國 WEST電氣	사진용섬광기	1974-02-25
금 속	韓國明光	철제Box Washer	1973-03-28
	馬山伸管	비철금속 인발관 및 봉	1973-04-02
	韓國富士	용접강관	1973-12-10
	村上鋼業	못	1974-02-06
	馬山鋼管	용접강관	1974-02-15
	馬山製線	C.F. Bar 및 C.H.Q. Wire	1974-03-15
	韓國古里	Brace 및 Nut	1974-03-15
	韓國中谷	Screw	1974-05-25
	日本製線	못	1974-06-01
韓國日釘	못	1974-06-01	
기 계 기 구	King&ChoiYacht	Cement 製 Yacht	1972-07-01
	크로몰딩	금형 및 합성수지 제품	1972-10-23
	韓國canyon	HandSprayer	1972-10-25
	韓國日吉釣具	낚시용Reel	1972-11-01
	韓國産業	WasherNut 및 Plug	1973-03-03
	韓國T.S.K.	Control Cable	1973-03-21

		東京P.A.C.	자전차	1973-03-25
		韓國Olympic釣具	낚시용 대	1973-07-05
		한국구시고	Ball Caster 외 2종	1973-07-10
		韓國東海	Rear Combination Lamp	1973-08-16
		韓國岡部	Bolt 및 Nut	1973-08-21
		韓國히노모도	Wing Nut 및 Bolt	1973-09-10
		韓國葉精密	Mold Plate	1973-10-23
		韓國東洋工業	수동 Winche 외 2종	1973-10-30
		韓産SCREW	Screw	1973-10-30
		韓國미로꾸	엽층	1973-11-08
		韓國赤松	超更Dies공구	1973-11-10
		韓國ABS고꾸부	Screw	1973-12-01
		TACOMA	괘속정 외 어선	1974-02-01
		韓國大鵬	Nut	1974-04-25
섬	유	F-One	신사복	1972-01-07
		韓國日輸	모자 및 가방	1972-02-21
		Sun Horse	신사복	1973-02-01
		韓南纖維	메리야쓰내의	1973-08-10
		新羅産業	견직물	1974-06-01
		大東工業	신사복	1974-06-15
전	기	韓國南産業	장식용전구 및 특수전구	1972-03-12
		韓國三陽工業	Micro-Phone Cord 외 3종	1973-05-22
		韓國中川電化産業	Time Switch 및 Motor	1973-07-03
		八精電氣	발전기 및 변속기	1974-03-31
전	자	韓國東光	가중 코일	1971-07-07
		K.T.K.	트랜지스터, IC	1971-11-01
		韓國東京電子	테이프레코더, 카스테레오	1972-08-01
		韓國TC電子	라디오 인터콤 등	1972-08-18
		韓國 수미다電子	각종 코일	1972-09-04
		韓國REALTONE	Radio with Tapeplayer	1972-10-20
		韓國東洋通信	Radio, Stereo Amp	1973-01-09
		韓國日線	전자부품	1973-04-17
		韓國東京 SILICON	전자부품	1973-06-08
		韓國太陽誘電	전자부품	1973-06-22
		韓國三誠電機	전자부품	1973-06-25
		韓國SOWA	전자부품	1973-07-25
		韓國星電	전자부품	1973-08-10
		韓國富士工業	테이프레코더	1973-10-16
		韓國三美	코일, 모터	1973-10-16
		韓國伊勢電	전자부품	1973-11-09
		韓國大丸	라디오	1973-11-11
		韓國電子 CABINE	전축 및 동부품	1973-12-06
		韓國東京電波	전자부품	1974-02-25
		韓國産研	발광다이오드	1974-05-03
화	공	第一縫製	합성피혁장갑	1971-11-05
		韓國豊山製靴	가방	1972-09-26

	韓國Swany	합성피혁장갑	1972-10-09
	韓國Sports用品	야구글로브	1973-02-05
	韓國月城	Chemical Shoes	1973-03-03
	韓國하찌료	Chemical Shoes	1973-05-01
	韓國力王	신발	1973-07-15
	大成産業	Chemical Shoes	1973-11-03
	韓國井上化成	자전거용 튜브 및 타이어	1974-03-25
	韓國기무라	골프백	1974-04-01
	韓國化成	합성수지제품 (정화조)	1974-04-04
	信興化學	地下足袋	1974-04-10
기 타	韓國黒川	양산	1971-11-01
	ChungRajaFashion	가발제조	1971-11-01
	UnionAsbest	석면사	1972-01-04
	東京美研	식품 Sample 및 양초 공예	1972-05-20
	韓國洋傘	양산	1972-08-17
	韓國Newbon	양산	1972-10-16
	平田工業	앨범	1972-11-01
	河內産業	앨범	1972-11-03
	日東産業	양초, 공예	1973-01-22
	北菱	식품가공(수산물)	1973-08-02
	韓南岩谷	금속완구	1973-09-20
	高麗有田	고급도자기	1973-11-20
	馬山産業	布地玩具	1973-03-?

출처: 국가기록원, 대통령비서실, 마산수출자유지역 가동실태조사, 경제 제1, 보고번호 제64호, 1974.7.22., 국가기록원, 이상철(2008) 재인용

<표 3-3>은 1974년의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주 생산품목을 나타낸다. 주 생산품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비록 전자, 기계, 금속과 같은 중화학분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전자, 기계, 금속 업체들은 노동집약인 방식으로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간단한 부품이나 못과 스크류 등의 부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보다 전자제품의 재료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가깝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전자기기는 라디오 전구 등 간단한 제품에 불과하거나 혹은 신사복, 모자, 가방 등 수공업관련 제조 제품들이었다. 따라서 <표 3-4>를 통해 알 수 있는 197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 수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전기전자산업은 분류상으로는

중화학공업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노동집약적 부품생산 경공업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표 3-4>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업종 별 수출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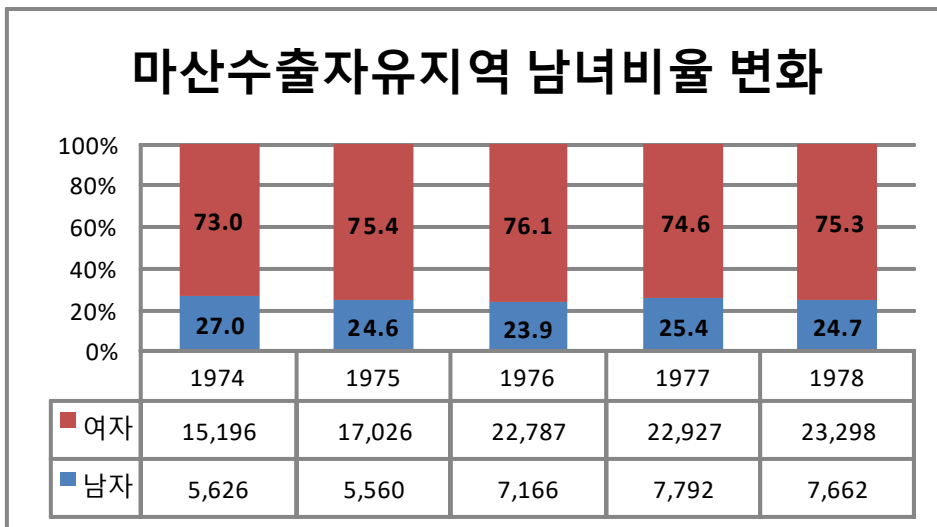
	전기전자	정밀기기	금속	섬유봉제	신발	기타	계
1971	825	0	0	9	0	22	856
1972	6,980	0	36	747	1,793	183	9,739
1973	45,411	742	5,833	3,761	6,223	8,404	70,374
1974	98,345	4,944	41,704	6,472	14,837	15,245	181,547
1975	93,364	6,963	29,320	8,424	8,044	28,688	174,803
1976	174,688	14,177	40,019	11,881	23,124	39,111	303,000
1977	191,529	27,123	43,853	14,234	27,274	63,905	367,918
1978	275,193	29,419	61,244	16,237	36,214	66,481	484,788
1979	360,323	41,697	66,637	16,373	36,809	78,719	600,558
1980	394,775	79,957	51,126	11,696	38,303	52,243	628,100

출처: 통산산업부 (1997),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 25년사, pg. 461-462, 단위: 천 달러

2) 근로자의 특징

(1) 남녀비율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공업적 특징은 남녀비율을 통해 극명하게 증명된다. <그림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4년의 고용인원의 남녀비율은 약 3대 7에 달한다. 이 후에는 그 비율이 더욱 늘어, 1978년에는 약 2.5대 7.5까지 여성 근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림 3-3> 마산수출자유지역 남녀비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연도별 고용현황, 재가공

동아일보 1976년 7월 3일 기사에는 당시 전기, 전자, 섬유업에 여성 노동자가 몰렸던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되어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풍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사에서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성한 경남대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공업단지에는 총 21만 9천200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있으며 이중 여성근로자는 약 70%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같이 여성근로자가 많은 것은 여성근로자가 남성에 비해 노무비가 싸고 경공업에 대한 숙련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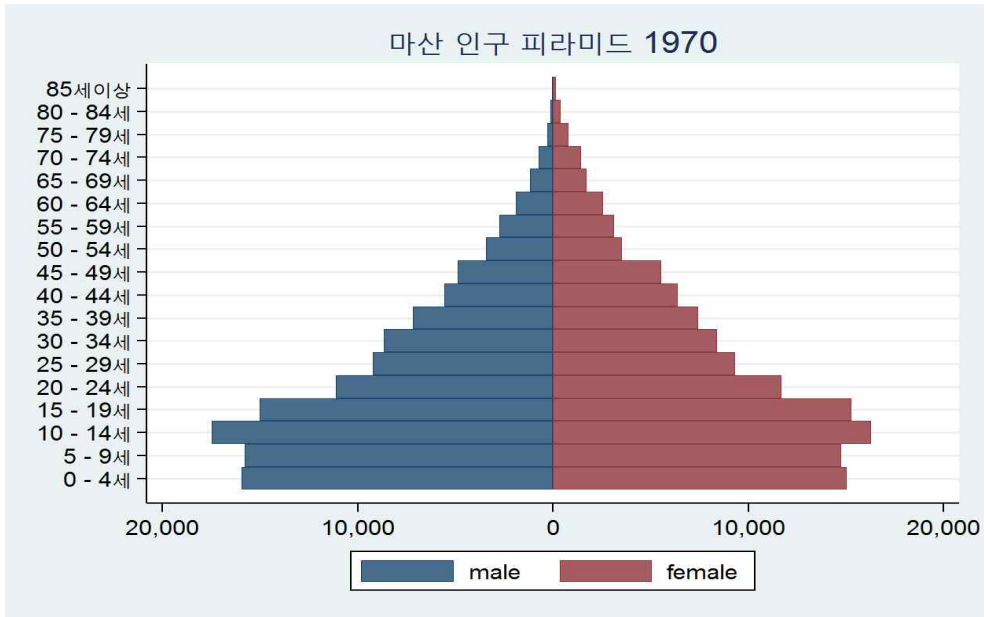
성근로자는 낮은 임금에서도 남성에 비하여 심리적 거부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¹³⁾ 김춘택(1991)은 1986년의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여성보다 2.32배 더 높았으며 그 중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 일자리의 65%를 차지하고 있던 전자산업의 경우 성별임금격차가 가장커서 남성 노동자는 여성 노동자보다 2.73배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마산의 경우 대부분 사춘기 연령층으로 기숙사 등 후생시설을 확충하고 고등학교에 준하는 야간 교육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관리청내 카운슬링 제도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2) 미혼 여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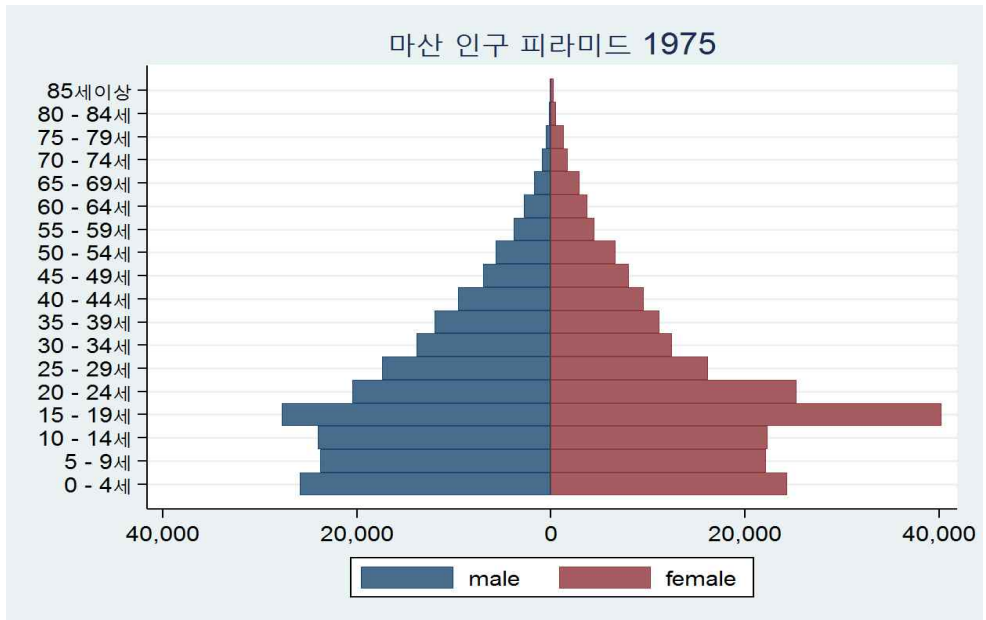
마산은 1967년 마산 양덕동 222번지에 문을 연 한일합섬에서 발생한 고용인원과 1970년 입주를 시작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타지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많은 유입이 계속되었다. <그림 3-4>에서 보이는 것처럼 1970년 실시된 인구조사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지만 <그림 3-5>에서 알 수 있듯이 1975년 마산은 15-19세 여성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인구구조를 보여주는 <그림 3-6>에서도 15-19세 인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15-19세 여성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80년 마산지역의 15세-24세 여성인구는 6만2065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인구 41,210명에 비하여 약 1.5배 많았다.¹⁴⁾

13) 동아일보, 아직도 먼 근로여성의 복지- 지방공단의 실태, 1976.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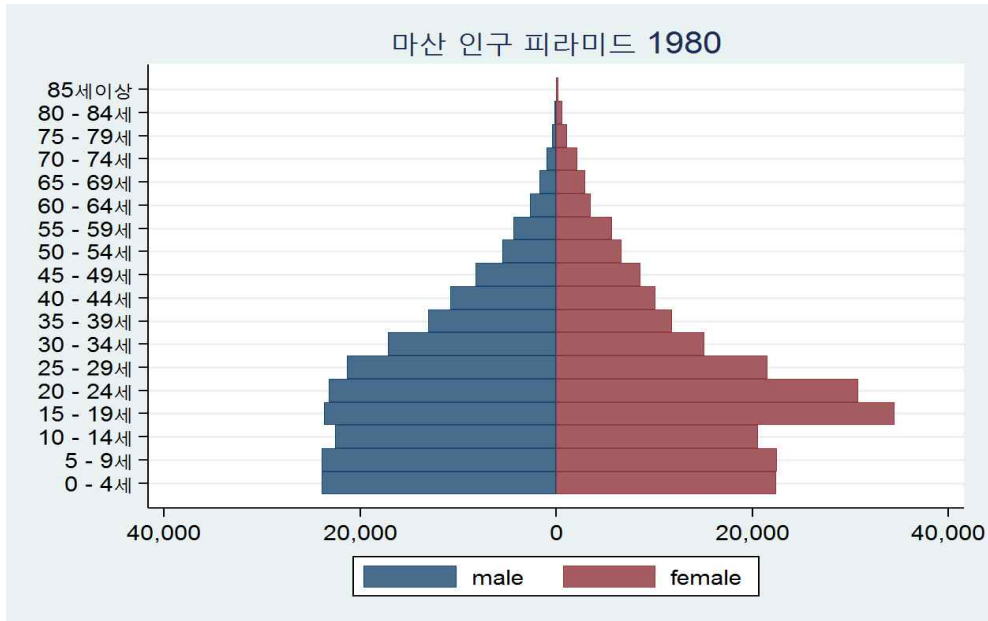
14)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연도별 고용현황,
<<https://www.ftz.go.kr:30443/kor/Morgue/Total/totalEmployment.jsp1>>



<그림 3-4> 1970년 마산 인구 피라미드



<그림 3-5> 1975년 마산 인구 피라미드



<그림 3-6> 1980년 마산 인구 피라미드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통계, 재가공

1980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총 근로자 28,532명 중 여성은 22,183명으로 약 77.8%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⁵⁾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는 기숙사가 있었지만 총 수용인원이 20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¹⁶⁾ 나머지는 기존 마산 시가지에 흩어져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늘어난 여공의 이주는 마산 시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1973년 8월 20일 매일경제 기사는 당시 늘어난 여공들에 의해 바뀐 마산 시내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

“이 지역 내의 고용인원은 18일 현재 1만 4500명, 마산 시내의 실업률은 전무한 상태.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의 노동력까지 흡수, 심지어는 멀리 호남지방에서까지 취업인구를 끌어들이는 실정...(중략)...주택가의 월세방 값이 3배나 가까이 오른 것은 연초의 이야기. 최근에는 각 기업체의 여공흡수로 상류가정에서는 가정부를

15)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민원·통계, 연도별고용현황, <<http://www.ftz.go.kr/kor/Morgue/Total/totalYear.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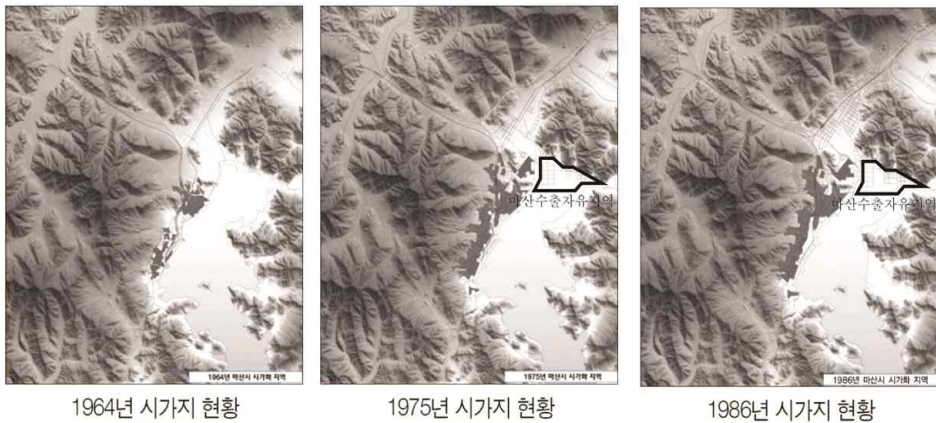
16) 商工部 馬山輸出自由地域管理所 (1987), 輸出自由地域 十五年史 : 1970-1985, pg. 274

구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¹⁷⁾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젊은 여성들의 마산 유입이 토지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인접한 양덕동 일대의 경우 지난 73년 10월경과 비교해 보면 임야는 평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전답은 1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지는 1만 4000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크게 뛰었다. 주택은 평당 8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올랐다.”¹⁸⁾

<그림 3-7>에서 나타난 바처럼 당시의 시가지 모습을 보면 마산수출자유지역 건설 이후 마산의 시가지가 급격하게 발전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1974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창원기계공업기지의 배후도시 건설이 늦어지면서 창원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마산으로 유입된 까닭도 있지만 적어도 마산수출자유지역 인근의 양덕동일대의 늘어난 시가지는 마산에 이주한 여공들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림 3-7> 마산 시가지의 변화

출처: 박형규, 서유석 (2009)

17) 매일경제, 지도가바뀐다 <5>마산수출자유지역, 1973년 8월 20일

18) 매일경제, 주택 대지거래 한산 농지는 급용등 현상, 1975년 1월 17일

마산의 산업을 구성하고 있던 근로자의 특징을 정리하면 1980년을 기준으로 약 2만 여 명의 미혼 여성 근로자들이 마산수출자유지역과 한일 합섬에 제조업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었고 부족한 기숙사 등 거주시설의 영향으로 이들은 기존 마산 시가지에 거처를 마련했다. 늘어난 수요에 따른 결과로 당시 마산시내의 주택 및 토지가격은 급등했다고 할 수 있다.

(3) 기술교육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주요 산업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조업이었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추가 교육은 특별히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원하는 노동력은 장시간 집중하여 기계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었지 특출한 기술로 혁신을 이루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실시한 교육은 관리청에서 운영하던 직업보도훈련원에서의 입소 후 1주일간 진행된 취업 전 소양교육 뿐이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이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들은 여자 4만 1,019명, 남자 9,934명으로 총 50,953명이었다.¹⁹⁾

19) 商工部 馬山輸出自由地域管理所 (1987), 輸出自由地域 十五年史 : 1970-1985, pg. 111

3.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계획

경공업단지였던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중화학공업과 비교하여 숙련노동공의 중요성이 훨씬 덜했다. 따라서 창원에서 중화학공업 숙련노동공의 생산과 유지를 위한 계획들이 마산에서는 불필요했다. 그 결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계획은 창원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본 절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계획에 대하여 정리할 것이다. 이는 뒷장에서 살펴볼 창원기계공업기지 계획과 비교하여 교육시설과 주거단지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 법규

마산에 공업공단을 건설하는 계획이 세워졌을 때,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법률 제 2180호)을 제정한다. 이 법률은 2016년 9월 1일까지 49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0년 1월 12월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6142호)로 명칭이 바뀌고, 2004년 3월 22일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210호)로 바뀌어 현재까지도 마산수출자유지역(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3-5>과 같다.

<표 3-5>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주요내용

조 항	내 용
제 1 조 (목 적)	이 법은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유지역의 지정)	자유지역은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한다.
제4조 (자유지역의 조성)	① 자유지역내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과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한다.
제5조 (관리청의 설치)	① 자유지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자유지역마다 자유지역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 (입주기업체의 자격)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는 기업체 2.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한 기업체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로 대한민국국민과 공동으로 투자한 기업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자유무역지역설치법²⁰⁾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의 목적은 임해 특정지역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며 지정은 건설부장관, 내무부장관, 상공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조성은 건설부 장관이 주관하며, 운영은 상공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관리청에서 하게 된다. 또한 입주업체의 자격도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한 기업체이거나 외국인이 일정한 투자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국내기업이지만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만 부여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부여되었다. 이 법률은 당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상황에서 외국의 자본을 보다 쉽게 유치하여 공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산업단지들은 여러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지정과 건설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

20)

<<http://law.go.kr/lInfoP.do?lsiSeq=2582&ancYd=19700101&ancNo=02180&efYd=197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공부장관의 관리 하에 운영되게 되지만 외국계 기업이거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만 입주가 가능한 등 여러 제약이 많고 노골적으로 노동집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법률의 궁극적 목적은 국내법과 관세가 배제되는 적용완화지역을 설치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를 촉진하고 외자 도입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있다.

두 번의 전면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법률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3-6>은 수출자유무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뀔 당시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될 때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표 3-6> 수출자유무역설치법 개정내용

일시	명칭	개정이유
2000.01.1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종전의 제조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로운 제조와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04.03.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하며,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²¹⁾,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²²⁾

개정이유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면 기존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국내의 노동자의 임금상승 등 여러 이유로 더 이상 어려워지자 그 상황을 개선

21)

<<http://law.go.kr/lInfoP.do?lsiSeq=2599&ancYd=20000112&ancNo=06142&efYd=2000071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2)

<<http://law.go.kr/lInfoP.do?lsiSeq=59127&ancYd=20040322&ancNo=07210&efYd=2004062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하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IMF 사태 이후 좀처럼 재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국내 경공업 제조업의 상황의 현실을 볼 때 본 법률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개정사항들로 개선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조성기관

1969년 계획된 마산임해공업단지조성계획²³⁾과 1973년 계획된 창원기제공업기지계획²⁴⁾은 계획시기가 불과 4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똑같이 청와대의 지시로 시작된 계획이지만 조성기관의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1973년 시작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표 3-7>은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에 관련되어있던 기관들을 정리하고 있다.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관기관이 협력했음을 알 수 있다. 상공부에서는 임해공업단지조성을 위한 제반계획을 수립했고,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는 임해공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하고 기지조성 역할을 맡았으며 마산시에서는 해안 매립사업과 추후에 있을 추가 사업을 담당했다. 상수도공사, 공업용수, 기간도로, 전기, 통신, 분양, 기지관리, 이주대책수립, 투자알선, 항만 등 필요한 제반공사는 특수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주관했다.

23) 국가기록원,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 1969. 6. 19

24) 국가기록원, 창원기제공업기지 건설계획, 1973. 9. 10

<표 3-7>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기관

사업항목	주관부서	비고
계 획	상 공 부	임해공업단지조성
	한국수출산업공단	자유무역지역조성
	마 산 시	해안 매립사업
기지조성총괄	한국수출산업공단	제1,2공구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제3공구는 추후 마산시 주관으로 조성
상 수 도	마 산 시	
공업용수	건 설 부	
기간도로	마 산 시	
철 도	-	
전 기	한 전	
통 신	체 신 부	
아파트건립	-	
조 경	-	
분 양	한국수출산업공단	
기지관리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주대책	한국수출산업공단	
투자알선	한국수출산업공단	
항 만	건 설 부	

출처: 국가기록원(1969),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

이는 수출자유무역지역설치법에서 명시된 바대로 한 기관에서 담당하기보다 여러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과정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의 증가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소요예산

<표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에서 책정된 사업비를 보면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알 수 있다. 마산임해공업단지는 조성비로 16억 4,900만원, 부대비로 4억1,800만원을 책정하여 이자포함 총 20억 8,700만원의 소요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다.

<표 3-8> 마산임해공업단지 예산 계획

사 업 명	사 업 비
조 성 비	1,649
부 대 비	418
기체이자	20
계	2,087

출처: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 (1969), 재구성, 단위: 100만 원

마산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목적이 명확하게 노동집약 산업중심의 경공업단지로 계획되어 넓은 공장부지가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등의 추가계획이 예정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조성계획에서 명시된 예상 사업비는 공장시설 건설,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금액만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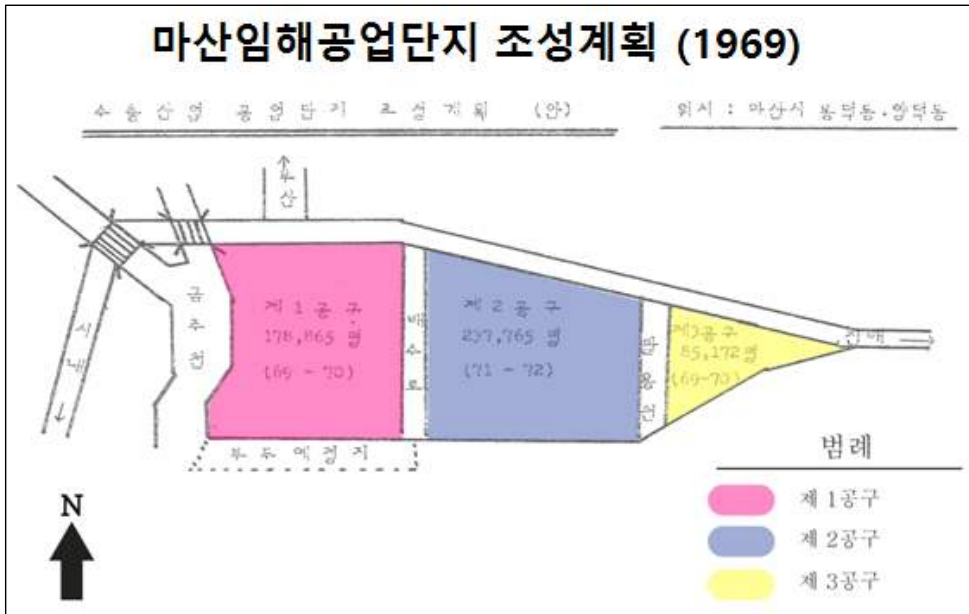
4) 사업규모

<표 3-9>는 마산임해공업단지의 계획면적을 나타낸다. 초기 계획에서 제 1공구는 17만 8,800평, 제 2공구는 23만 7,700평, 제 3공구는 8만 5,100평으로 총 50만 1,800평으로 예정되어있었다. <그림 3-8>은 마산임해공업단지의 기본구상도이다. 1969년 계획에서는 제 1공구와 제2공구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업단지의 총 계획면적은 저습지 8만3,590평, 매립지 33만 3039평 등 41만 6,630평이었다. 계획은 공장지대의 배치와 단지 조성에 필요한 가로, 상하수도, 용수공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그 외의 지원시설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가 기존의 존재하던 마산 시가지의 기반시설을 이용하게끔 유도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3-9> 마산임해공업단지 계획면적

구 상	면 적	비 고
제1공구	17.88	
제2공구	23.77	
제3공구	8.51	추후계획
계	50.18	제3공구 포함

출처: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 (1969) 재구성, 단위: 만 평



<그림 3-8>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

출처: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 (1969), 수출산업 공업단지 조성계획, 재구성

4. 마산 도시의 변천

마산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 마산수출자유지역 산업의 변화는 마산 도시 변천의 주요한 요인이다. 본 절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산업의 변천을 살펴보고 그 변화가 마산 도시 인구구조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산업구조

<표 3-10> 마산수출자유지역 연도별 현황

연도	투자액 (천\$)			수출액	고용인원	업체수
	내자	외자	계	(천\$)	(명)	(개사)
1970	200	1,236	1,436	-	-	4
1975	6,185	82,810	88,995	174,803	22,586	105
1980	19,748	93,136	112,884	628,100	28,532	88
1985	29,453	96,739	125,892	809,319	28,983	79
1990	34,464	181,353	215,817	1,405,374	19,616	72
1995	54,270	181,035	235,306	2,400,929	14,736	73
2000	57,683	193,676	251,359	4,442,141	14,415	78
2005	76,531	201,800	278,331	4,241,018	8,665	74
2010	77,378	137,897	215,275	3,774,318	8,085	94
2014	81,320	106,466	187,786	1,164,518	6,157	101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연도별 주요통계

<표 3-10>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연도 별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각 지표별로 봤을 때 1970년대부터 1975년까지는 입주업체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였다. 1980년대에는 고용인원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이 시기의 성장은 전자, 전기 및 금속 업종이 주도했다. 1990년대부터는 투자액이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줄곧 역대 수출의 90%를 차지하던 전자, 전기 업종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기계,

광학, 조선, 정밀기기, 금형 등으로 업종 다변화를 통해 공단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업종의 다변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1990년대 후반 들어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경쟁력약화로 국내 경공업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표 3-11>과 <표 3-12>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설립초기 업종과 현재의 업종을 보여준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노동집약적 기계기구와 전자업종 산업이 2016년 현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정밀기기, 전자전기 등으로 변화하였다. 해당 내용은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16년간 근무해온 윤한옥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과거 주로 일본에 본사를 둔 전자회사에서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노동집약적인 일자리는 없어지고, 현재는 기술력에 바탕을 둔 회사들로 변화 하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산업(기계, 환경, 자동차 부품 등)이 생겨났으며, 섬유, 전자기기, 시계, 광학부분의 산업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주요 근로자였던 미혼 여성공들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기존에 일하던 미혼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전업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기존 마산 도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던 미혼 여성공들은 경공업의 노동집약적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떠나게 된 것이다.

<표 3-11> 1974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업종

업종	업체수
기계기구	20
전자	20
화학	12
금속	10
섬유	6
전기	4
광학기기	4
기타	13
계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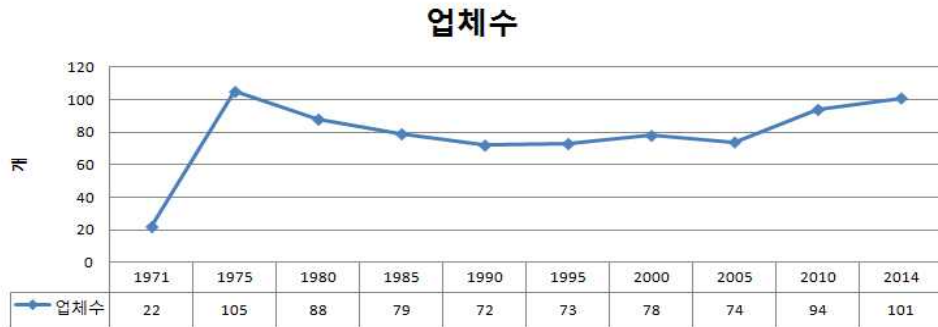
출처: 대통령비서실, “마산수출자유지역 가동실태조사”, 경제 제1, 보고번호 제64호, 1974.7.22., 국가기록원, 재가공

<표 3-12> 2016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업종

업종	업체수
정밀기기	41
전자전기	27
기계제품	10
금속	4
비금속	3
섬유봉제	2
기타	15
계	102

출처: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업종별입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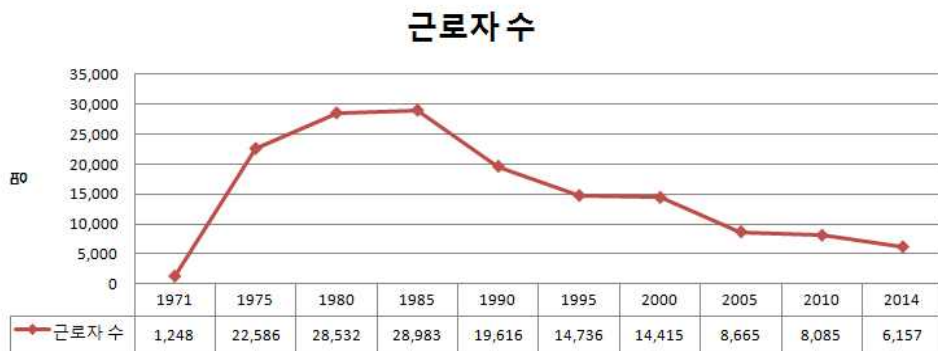
<그림 3-9>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등록 업체 수를 나타낸다. 5년 단위로 나뉜 그래프에서 등록업체는 1975년 105개로 최대 업체를 유치했지만 그 이후 차츰 감소하여 1990년 72개까지 줄어들게 된다. 최근 들어 그 수를 회복하여 2014년에는 101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그림 3-9> 마산수출자유지역 업체수의 변화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연도별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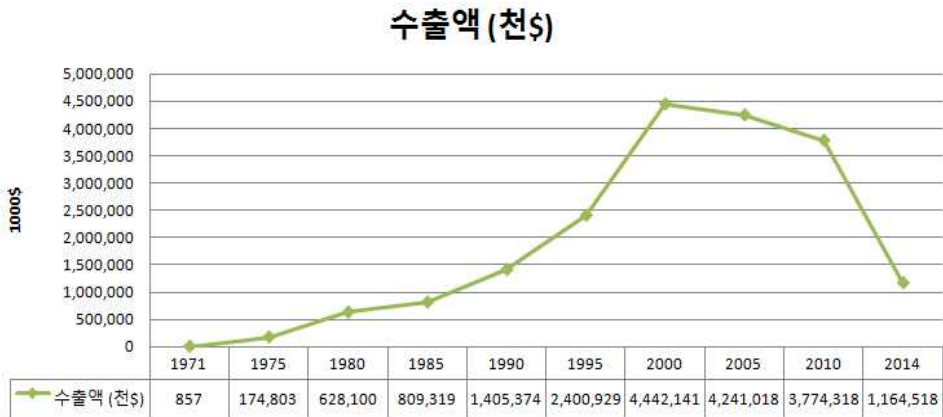
<그림 3-10>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근로자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근로자수는 초기 급속도로 증가하여 1985년 28,98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에는 6,157명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림 3-10> 마산수출자유지역 근로자수의 변화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연도별 주요통계

<그림 3-11>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수출액²⁵⁾의 변화를 나타낸다. 1971년 857,000달러로 시작한 수출액은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44억 4,214만 1,000달러를 기록하지만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2010년 대비 약 3배 급감한 11억 6,451만 8,000달러를 기록한다.



<그림 3-11> 마산수출자유지역 수출액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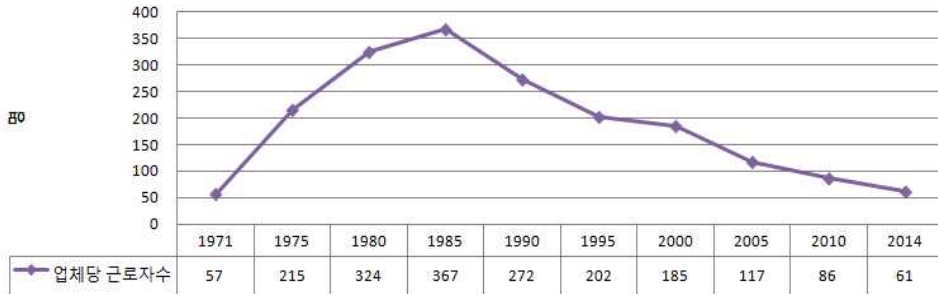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연도별 주요통계

위의 자료를 토대로 업체 당 근로자 수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그림 3-12>와 같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초기 업체 당 근로자 수는 57명이었지만 업체 당 근로자 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 367명으로 최고점을 찍는다. 이 후 업체 당 근로자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기업 하나당 61명의 근로자만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²⁶⁾

25)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국내 유통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출액은 곧 생산액과 같다.

26) 2012년 당시 1,450여명의 근무자를 고용했던 노키아TMC를 제외하면 업체 당 근로자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2012년의 기사를 토대로 노키아TMC의 근로자 약 1,450명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해당 년 업체 당 근로자 수는 52.72명 까지 줄어든다.

업체 당 근로자수



<그림 3-12> 마산수출자유지역 업체 당 근로자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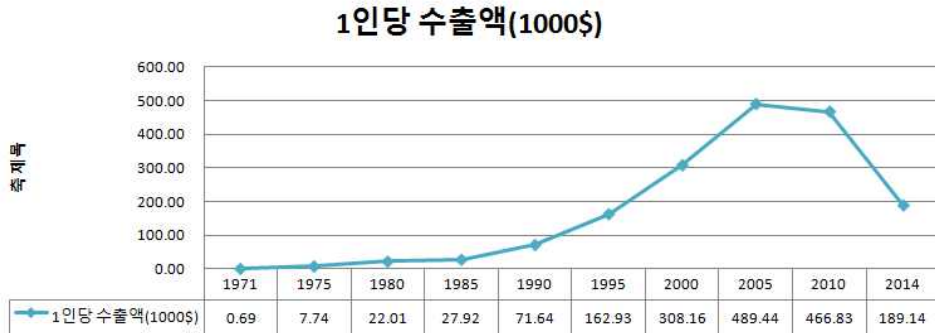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연도별 주요통계

<그림 3-1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85년을 기점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노동집약산업에서 벗어나 점차 1인당 생산액을 늘리는 형태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1984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노키아TMC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노키아TMC는 1992년 연간 수출 1억불, 1998년 연간수출 10억불, 2001년 연간수출 27억불을 달성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²⁷⁾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노키아TMC라는 한 개의 대기업과 그 하청기업들의 형태로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변화는 1인당 수출액을 통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림 3-13>에서 나타난 것처럼 1990년대까지의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90년 기준 1인당 수출액이 2만 7,000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1인당 수출액은 증가하여 2005년에는 48만 9,440달러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2014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1인당 수출액은 갑자기 18만 9,140달러까지 급감하는데 이는 전체적인 수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수출액의 원인은 2010년 초반 마산수출자유지역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노키아TMC의 몰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8년 마산수출자유지역 전체 수출액 50억 7,218만

27) 사람인, 기업정보, <http://www.saramin.co.kr/zf_user/bbs-tong/view/com_idx/59>, NICE 평가정보, 이크레더블, 금융감독원(DART) 기반자료.



<그림 3-13> 마산수출자유지역 1인당 수출액의 변화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연도별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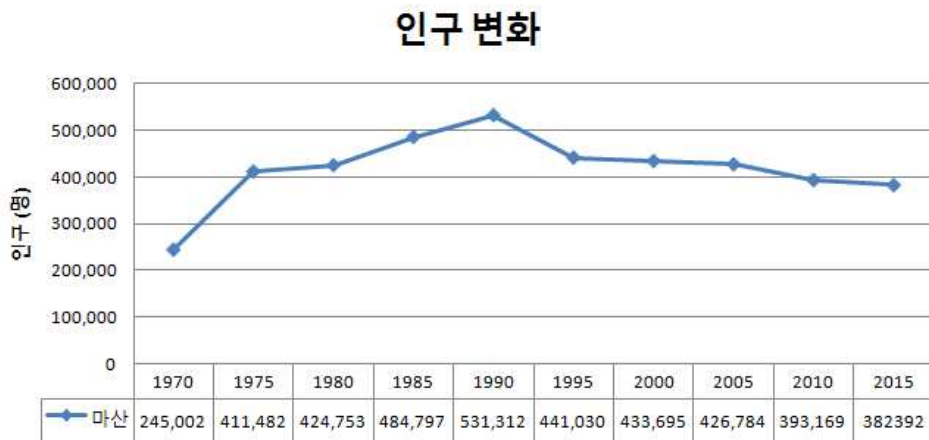
달러 중 83.9%를 차지한 노키아TMC는 핀란드의 전자기업 노키아가 100% 출자한 세계 최대의 휴대폰 공장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외국인투자 기업이었다. 그러나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하던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이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으로 거짓말처럼 몰락하면서 노키아TMC의 휴대폰 공장도 같이 문을 닫게 되었다. 2012년 노키아TMC는 당시의 고용인원 1,450여명 가운데 1,200여명을 감축하기로 발표하고 250여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으나²⁸⁾ 2014년 4월 25일 노키아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노키아TMC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해 7월 완전히 폐업하게 된다.²⁹⁾ 이에 따라 2014년 수출액과 1인당 수출액 지표는 급감하게 되고 노키아의 폐업이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전체적인 경제 역시 이전에 비해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28) 김영만, 노키아티앰씨 구조조정예 마산자유무역지역 위기, 연합뉴스, 2012. 9. 24.

29) Business Korea, Nokia's Factory in Korea Excluded from M&A Deal, 2014. 4. 23.

2)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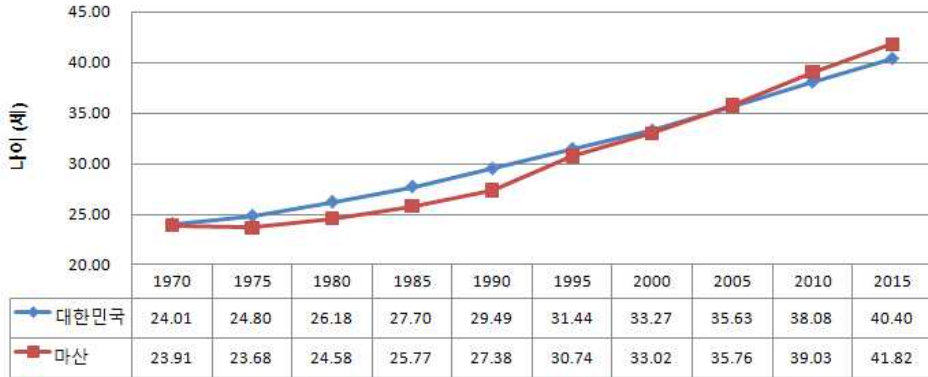
<그림 3-14>는 마산의 인구변화를 나타낸다. 도시의 인구를 살펴보는 이유는 인구의 총량의 변화가 도시의 부흥과 쇠퇴를 나타내는 보편적 척도이기 때문이다. 마산의 인구는 1970년 24만 5,002명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이 들어선 이후 급증하여 1975년 약 1.7배 증가한 41만 1,482명까지 늘어났으며 해마다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1990년 53만 1,312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1990년대 말 IMF 사태와 더불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현재는 38만 23,92명으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3-15>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전국의 인구변화율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으나 마산의 경우는 인구의 변동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4> 마산 인구변화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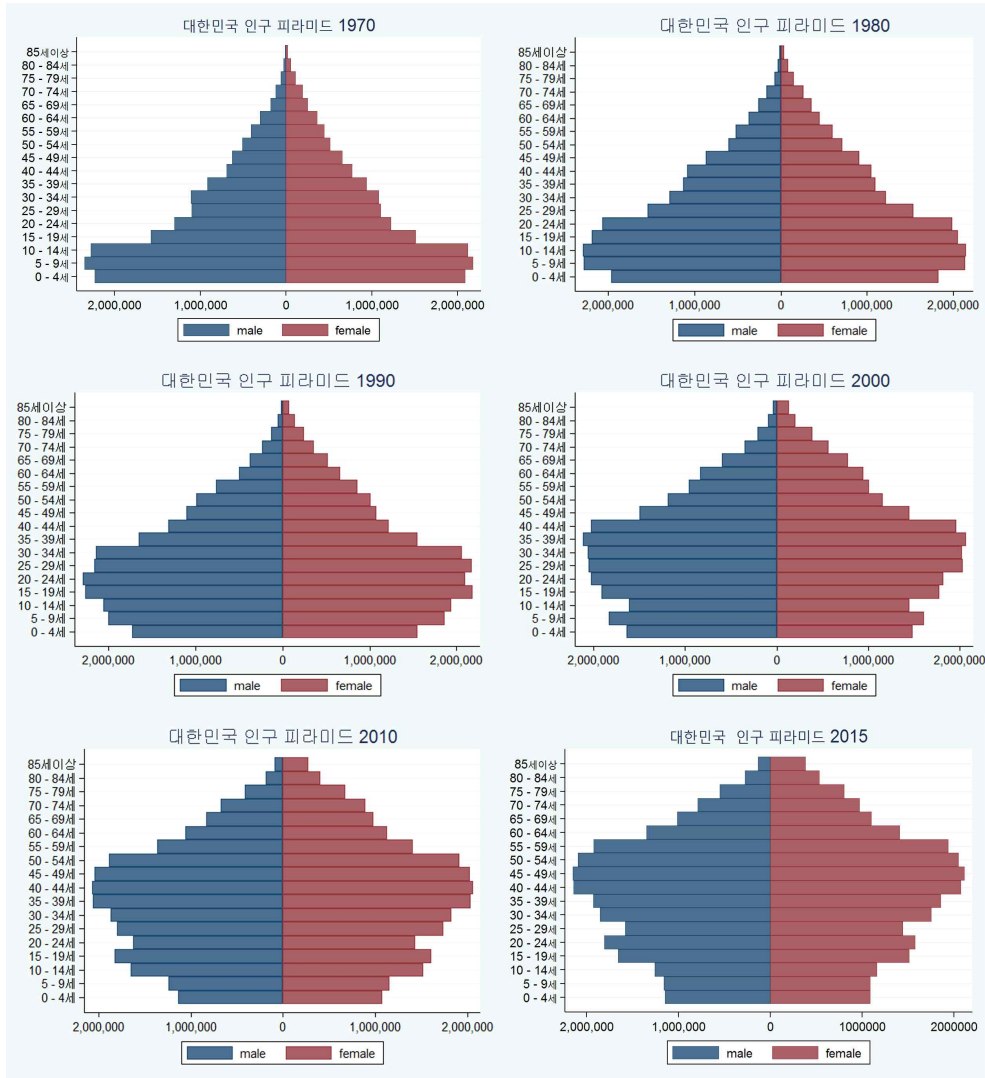
평균연령의 변화



<그림 3-15> 마산 평균연령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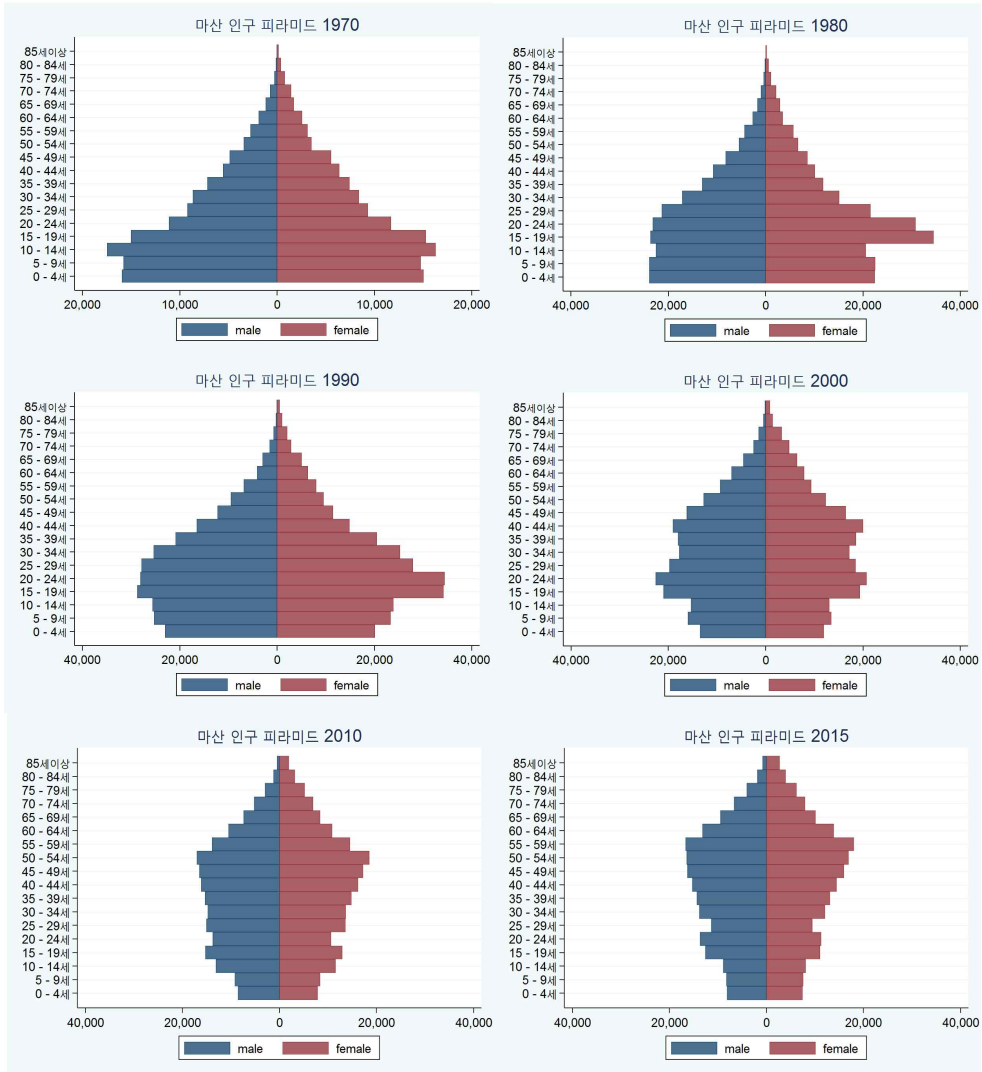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 재구성

<그림 3-16>과 <그림 3-17>은 대한민국과 마산의 인구구조 변화를 나타낸 인구피라미드이다. 1990년 마산의 인구구조는 1970년 마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0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된 15-19세, 20-24세 인구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인구 패턴은 1990년대까지 계속 확인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관찰되던 15-19세, 20-24세 그룹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위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15-19, 20-24세 그룹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가장 많은 그룹으로 나타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이 연령 그룹의 유입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연령이 올라갔을 때 이들 미혼 여성공들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1990년대까지 계속 보이는 이러한 마산 인구구조의 특징은 2000년대 들어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 전국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는 마산의 산업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6>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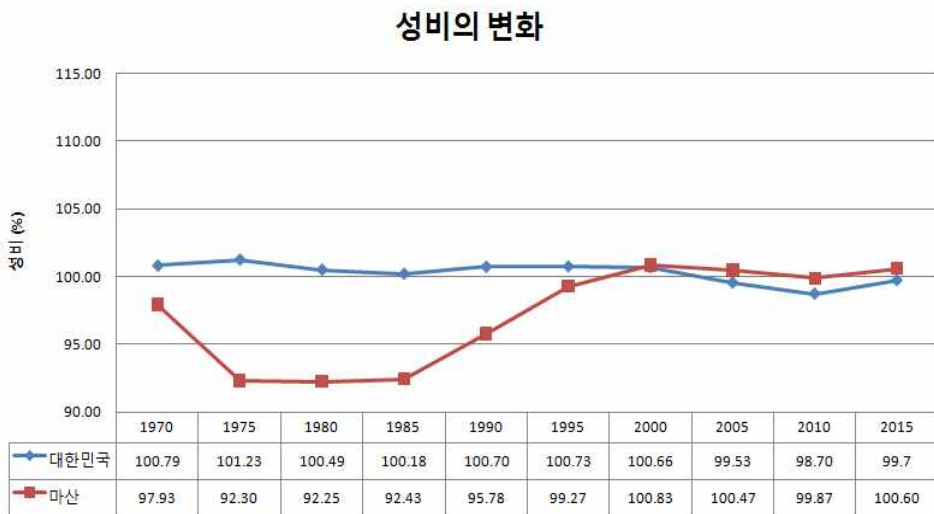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 재구성



<그림 3-17> 마산의 인구피라미드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 재구성

마산의 남녀구조 변화를 보면 마산산업구조의 변화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그림 3-18>은 마산의 성비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전국의 성비가 거의 일정하게 100%에 유지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마산의 성비는 큰 변화를 겪어왔다. 1970년 마산의 남녀비율은 남자가 100명 일 때 여자가 약 98명 정도인 97.93%를 나타내고 있지만 1975년과 1980년은 각각 92.30%, 92.43%로 여성인구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지만 1990년대부터는 남녀비율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2000년도 이후부터는 마산의 남녀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세-19세, 20세-24세 여성인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도시의 산업과 인구구조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8> 마산 성비의 변화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

5. 소결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조성당시부터 경공업 단지로써 계획되었으며 기존의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산업단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등 경공업단지가 갖는 계획적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비록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영향으로 중화학공업단지 분류에 속한 기업들이 입주했으나 실제로 생산하는 품목들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들이었다. 그러나 경공업이 국내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잃고 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마산수출자유지역도 자연스럽게 경공업단지의 형태를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인 노키아TMC와 하청업체 구조로 개편되어 단순한 수직상으로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한 가지 산업에 의존한 한계로 인해 마산TMC가 파산하자 마산수출자유지역 전체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변화된 산업의 특징은 도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1970-80년대 20-30대 젊은 여성위주의 인구구조를 보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과거의 경공업중심 도시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IV. 창원의 형성과 변천

1. 창원기계공업기지의 건설배경

1)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전국적 경공업개발의 열풍이 지속되던 1973년 1월 12일 박정희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수출 100억 달러, 1인당국민소득 1천 달러 달성을 위해 중화학공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유지되던 경공업개발 정책의 방향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진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식량자급, 공업구조 고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했고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진행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화학, 철강 및 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공업고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기존의 경공업중심의 공업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삼았다.³⁰⁾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중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여 보다 큰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1973년 5월 16일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를 대표로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화학공업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계, 전자 및 화학공업의 6대 국가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첫째, 중화학공업의 육성

30) 국가기록원, 기록으로보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
<<http://theme.archives.go.kr/next/economicDevelopment/primary.do>>

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둘째, 입지계획. 셋째, 부분별 추진계획. 넷째, 제반 지원계획. 다섯째, 계획수립과정 감독이었다.³¹⁾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더불어 정부는 1973년 12월 24일에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며 당시 수자원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재편하여 산업공단을 건설하기 위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중화학공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이전에 건설된 산업기지와 중화학공업을 위해 설치된 산업기지는 그 형태부터 세부지표까지 다른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1973년 5월 25일 동아일보기사 <그림 4-1>에 따르면 전국 중화학공업 건설은 당시 약 500억 달러, 총 20조원이 드는 큰 프로젝트이고 이 중 외자로는 30퍼센트를 일본과 미국에서 유치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1>에 나타난 것과 같이 1973년 대한민국 GDP가 5조 5천억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림 4-1> 20조원의 청사진부상

출처: 동아일보, 1973년 5월 25일

31) 국가기록원,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설치령, 1973. 5.16

<표 4-1> 1970 - 1980 국내총생산 (명목GDP)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국내총생산 (명목GDP)	2,795	3,433	4,260	5,514	7,880	10,505	14,413	18,520	25,023	32,219	39,471

출처: 통계청, 단위: 10억 원

그리고 1973년 9월 10일 창원 도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원기계공업기지건설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공사가 시작되게 된다. 박정희의 1973년 10월 시정 연설에서 그는 창원시에 기계공업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상당시간을 할애하며 국민들에게 선전을 했다. 창원기계공업기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창원 지역에 대단위 기계 공업 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소재공장, 부품공장, 제품공장, 전기기계, 정밀기계 공장군으로 구분 입주시켜 공장 규모는 대단위화하고 고급 제품을 염가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획기적인 기계 공업 육성의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80년대 초까지는 전자 부문 767개의 공장을 비롯하여 기계 부문에서는 322개 공장을 집중 육성할 것이며, 이로써 전자 및 기계 부문에서 각각 25억 달러 및 16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³²⁾

1974년 3월 21일, 우리나라 여섯 지역의 중화학공업조성구역에 대한 확정보고서가 중화학공업위원회에서 나오게 된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총 계획면적 3천30만3,000평 중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1천3백 11만 4,000평(43.35km²)으로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약 20억불의 공업생산규모, 기지조성방법, 약 20만 명 규모의 산업도시 건설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정권을 수립했던 박정희가 결정한 국가 산업의 나아갈 방향으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선택하고 그 중심지역으로 창원지역을 선택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2) 국가기록원,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 10집 10월편, 1973. 10. 4

2) 마산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영향

다른 많은 후보지역들 중 창원이 중화학공업단지로 선택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박정희의 고향이 경상도였다는 점은 논외로 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지리적인 요인으로 이 지역이 중화학공업 선정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중화학공업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때의 기준으로는 전문 업종별 공장 생산규모에 대응하는 항만조건, 용수조건, 용지 등 주로 물리적인 조건을 기초로 삼았으며, 최종적으로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³³⁾

당시의 대일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일본과 무역이 용이하면서도 위의 기준을 갖춘 지역들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이 중 한 곳이 창원이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마산시에서 추진하기 시작하여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마산지구개발기본계획’의 영향이다. ‘마산지구개발기본계획’은 마산시에서부터 시작되어 청와대까지 올라가게 된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산지구개발기본계획으로 인해 정부는 창원 지역의 뛰어난 입지적 조건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기존의 마산지구개발계획을 근거로 국가단위의 중화학공업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33) 국가기록원,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대규모 산업기지 개발,
<<http://theme.archives.go.kr/next/industry/special1970.do>>.

2.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산업

1) 생산품목

창원기계공업기지는 <표 4-2>에서 나타난 것처럼 1974년 24개의 기업의 입주가 결정된 것을 시작으로 석유파동의 영향이 있었던 1978년부터 198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을 기록한다. 1973년 사업의 최초계획에서 목표로 삼았던 104개의 기업입주는 1977년 이미 달성하여 공단가동 10년 만에 177개의 업체가 입주한 대규모 공업단지로 성장했다. <표 4-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산액 역시 입주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였다. 입주업체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의 초기 고용인원은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주춤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다시 회복하였다.

<표 4-2> 창원국가산업단지 연도 별 총 입주업체

연 도	총입주업체	가동업체	건설중
1974	24	1	-
1975	44	4	-
1976	58	16	-
1977	88	38	16
1978	122	56	19
1979	121	68	20
1980	120	76	14
1981	125	80	15
1982	124	83	12
1983	133	88	14
1984	177	93	15

출처: 창원기계공업공단 (1990), 창원기지 15년사, 창원공업기지 연도별 입주선정 가동 취소업체, pg.432

<표 4-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원기계공업기지는 초기목표로 37개 업종 104개의 공장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초기의 계획에 따르면 산업용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이 약 28%를, 합금, 특수강 등 중공업 업종의 소재 부문이 약 25%를 시계, 현미경 등 생산하는 광학기계 부문에

약 23%를 보트, 너트, 베어링 등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요소부품분야가 15.4%를 차지했다. 전선 및 케이블, 중전기계 등 전기분야와 선박용기계 등을 주로 생산하는 수송기계분야는 각각 약 7%와 2%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입주초기 창원기계공업기지는 중화학공업기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

<표 4-3> 창원국가산업단지 연도 별 생산, 수출, 고용추이

연 도	생산 (억원)	수출 (천불)	고용 (명)
1975	-	-	1,151
1976	492	2,527	5,854
1977	1,342	47,361	17,020
1978	2,740	65,000	30,874
1979	5,820	200,000	30,123
1980	7,540	270,000	28,860
1981	8,600	430,000	35,679

출처: 창원기계공업공단 (1990), 창원기지 15년사, pg.511

<표 4-4> 창원기지 내 공장건설 계획

부 문	공 장 수	구성비 (%)
산업기계	29	27.9
소 재	26	25.0
정밀기계	24	23.1
요소부품	16	15.4
전기기계	7	6.7
수송기계	2	1.9
계	104	100

출처: 창원기계공업공단 (1990), 창원기지 15년사, pg.488-489

1974년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24개였는데 이 중 대지분양이 최초로 이루어진 기업은 14개였다.³⁴⁾ 이들 기업의 당시 생산품목을 보면 중화학공업위주로 편성된 최초의 기업들이 실제로는 어떤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는 1974년 1차로 토

34) 昌原機械工業公團 編 (1979), 昌原基地五年史, pg 153

지분양을 받은 14개 기업들의 생산품목을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초의 기업들은 주로 볼트, 너트, 스크류 등의 요소부품류 등과 간단한 기계제품인 라디에이터, 축전기류를 주로 생산했다. 중화학공업 을 위해 건설한 산업단지지만 최초의 입주품목들은 완전한 의미의 중화학공업이라기보다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 4-5> 1974년 1차 입주기업 생산품목

기 업 명	생 산 품	분양면적 (천평)
우남상사	볼트, 너트	3
부산포금	밸브	30
남책금속	주물	20
동양중전	송변기기	10
창원공업	단조품	30.9
동광공업	나사제품	10
신아화스나	볼트, 너트, 스크류	5
미진금속	가단철물	22
삼성라디에타	라디에타	15
삼보전기	카뷰레터, 다이캐스트	15
진해전기	축전기	26
금성사	소형모터 가전제품	77.5
유니온가스	액체산소	12
조성전기	차량계기	5
계		281.4

출처: 창원기계공업공단(1979), 창원기지 5년사, 1차 사업 연도 대지분양현황, pg.153

초기의 공장들이 중화학공업에 걸맞은 규모를 갖추지 못한 것은 대기업들이 창원기지에 입주를 관망하였거나 착공에 차질이 생겨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토지분양을 받은 금성사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인 기신공업, 한국기계, 한국정밀하조, 국제기계, 삼립기계, 크라운산업, 한국조선, 고려용접봉 등은 입주선정업체로 명단에 올랐으나 결국 입주선정이 취소된다.³⁵⁾

매일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 창원공단 탄생 기사를 보면 당시의 대기업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1974년 2월 4일을 기해 산업기지가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작했는데 당시 섬유, 방직, 제당, 가발, 합판 등 경공업이나 건설업을 통해 기업을 성장 시켰던 회사들은 자본 회수기간이 긴 산업에 선뜻 투자할 수가 없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에 정부의 의욕적 계획과는 다르게 첫 분양 업체는 6개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향후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특히 국내 주요기업들은 창원공단을 철저히 외면했는데 실제 입주 초기의 공장가동률은 밑바닥을 보였고 입주한 회사들은 투자의 이자비용조차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³⁶⁾

당시의 현장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1974년이래로 박정희는 창원기지 현장을 자주 시찰하고 기계공업의 조속한 육성을 강조한다. 1974년 부진했던 국내의 유명 대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중화학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인 오원철 청와대 경제 제2수석비서관은 현지를 돌아보며 투자유치에 관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10여개의 대기업을 선정하여 그들의 자체공작실 운영 실태와 기계생산의 경험 실적 등을 조사하고 기계공업업종으로의 성공가능성을 점검하면서 대기업을 유치할 창원공단입주를 강력히 압박한다.³⁷⁾ 그 결과 1978년 석유과동의 영향이 있기까지 1974년 24개 업체에서 1975년 44개 업체(83% 증가), 1976년 58개 업체(32%증가), 1977년 88개 업체(52% 증가), 1978년 122개 업체로(39% 증가)하였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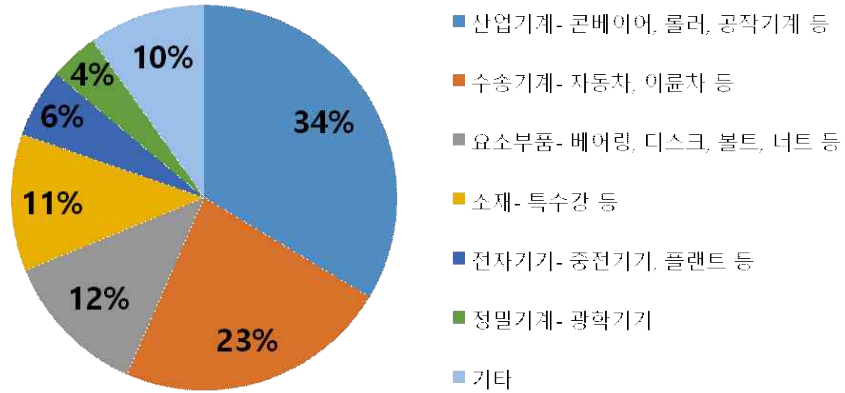
35) 昌原機械工業公團 編 (1979), 昌原基地五年史, pg. 152

36) 매일경제, 창원공단 탄생, 1995.08. 16

37) 昌原機械工業公團 編 (1979), 昌原基地五年史, pg 153

38) 昌原機械工業公團(1990), 昌原基地十五年, pg. 436

창원기계공업기지 (1978)



<그림 4-2> 1978년 입주업체 현황

출처: 창원기계공업공단 (1990), 창원기지 15년사, pg. 436

<표 4-6> 1978년 입주업체 현황

부 문	공 장 수	구성비 (%)
산업기계	41	34
수송기계	28	23
요소부품	15	12
소 재	14	11
전자기기	7	6
정밀기계	5	4
전기기기	0	0
기 타	12	10
계	122	100

출처: 창원기계공업공단, 창원기지 15년사, 1990, pg. 436

1974년 1차 입주기업의 현황(<표 4-5>)과 1970년대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최황황기였던 석유과동 직전의 1978년도의 입주업체의 현황(<그림 4-2>와 <표 4-6>)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는 초반의 요소 부품업에 집중했던 업체들 위주였던 것과는 다르게 산업기계와 수송기계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1차 입주에 경공업생산기업들이 입주한 것과는 다르게 그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대기업들의 입주를 통해 생산구조가 고도화되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중화학공업단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2) 근로자의 특징

(1) 중화학공업 성공의 열쇠

이와 같은 대기업중심의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노동자의 남녀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마와 같이 마산의 경우 입주초기 남녀비율은 3대 7에 달할 정도로 여성인력의 집중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창원기계공업기지의 경우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1978년 창원기계공업기지의 남녀비율은 9대 1로³⁹⁾ 마산의 결과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도대체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남녀비율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는 중화학공업이 가진 그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경공업단지인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중화학공업의 생산품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숙련도와 높은 이해도를 그 밑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중화학공업 성공의 열쇠는 고도의 기술훈련을 받고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스카우트

39) 昌原機械工業公園 編 (1979), 昌原基地五年史, pg. 277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발표한 당시 충분한 중화학공업 기술자 층이 있을 리 만무했다. 따라서 정부의 전략은 필요한 기술자를 최대한 모집하고, 부족한 인력은 전국각지의 젊은 남성들을 모아 충분한 기술교육과 오랜 기간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었다.

(2) 남성 숙련공

1979년 정부에서 세운 창원기계공업기지 장기인력수급계획은 매해 필요 노동자들의 수를 계획하여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충원될 수 있게 했다. <표 4-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기인력수급계획은 각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을 견습직, 기능직, 기술직으로 차등화 했고 그 외에 기술직들을 관리하는 관리 사무직을 두어 기술직과의 구별을 확실히 했다. 장기인력수급계획은 1983년까지 약 15만 명의 기술자들을 수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시 국내 대학 기계학과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영남지방의 대학, 특히 공대를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여 고급인력양성에 힘썼으며 부산 기계공고를 비롯한 실업계고등학교의 기계과 부분을 확대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⁴⁰⁾ 창원에 입주한 각 기업들은 자체인력확보와 정부가 마련한 인력수급계획에 기대를 걸면서 공장 건설을 서두르는 한편 고급기술직의 스카우트를 진행했고 외국에 연수차 많은 인력을 파견하는 등 인력문제 해결에 집중했다.⁴¹⁾

1978년 당시 정부는 지방의 공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인구집중억제책을, 지방에는 수도권 인구 수용책을 실시하는데 지방 수도권 인구 수용책의 내용은 <표 4-8>과 같다.

40) 昌原機械工業公團 編 (1979), 昌原基地五年史, pg. 277


41) 昌原機械工業公團 編 (1979), 昌原基地五年史, pg. 275

<표 4-7> 창원기계공업기지 장기인력 수급계획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가동 업체수		22	22	45	40	40	15	10
누계		38	60	105	145	185	200	210
기술직	증가	1,250	1,690	2,600	3,250	4,550	2,600	2,310
	누계	2,200	3,890	6,490	9,740	14,290	16,890	19,200
기능직	증가	6,390	8,580	13,200	16,500	23,100	13,200	12,100
	누계	11,220	19,800	33,000	49,500	72,600	85,800	97,900
건설직	증가	880	1,170	1,800	2,250	3,150	1,800	1,600
	누계	1,530	2,700	4,500	6,750	9,900	11,700	13,300
계	증가	8,520	11,440	17,600	22,000	30,800	17,600	16,010
	누계	14,950	26,390	43,990	65,990	96,790	114,390	130,400
관리 사무직	증가	1,160	1,560	2,400	3,000	4,200	2,400	1,990
	누계	2,050	3,610	6,010	9,010	13,210	15,610	17,600
합계	증가	9,680	13,000	20,000	25,000	35,000	20,000	18,000
	누계	17,000	30,000	50,000	75,000	11,000	13,000	148,000

출처: 昌原機械工業公園 編 (1979), 昌原基地五年史, pg.275, 재가공

<표 4-8>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

<p>首都圈人口再配置計劃 1977 - 1986</p>  <p>1978</p> <p>第1無任所長官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권, 전주권, 이리, 군산, 광주권, 대구권, 구미, 경산, 마산권 (창원 등) 5대 거점 도시권에 도시형공업, 기계금속 및 기타 공업유치 2) 여천, 포항, 울산, 온산, 신규개발 예정지 등 중화학기지 임해입지에 수출입업체 위주의 석유화학계열과 제1차금속, 비철금속 등 임해공업 및 관련 공업유치 3) 청주, 춘천, 원주 등 기타단지 및 계획입지에는 도시형 공업이나 기타 특수자원 이용형 공업유치 4) 기존 공단 종업원용 주거시설 우선건설 5) 기존 공당 내 과다점유 토지 등의 활용- 유희지 및 과다점유용지 활용촉구, 불응시에는 환수, 이전 기업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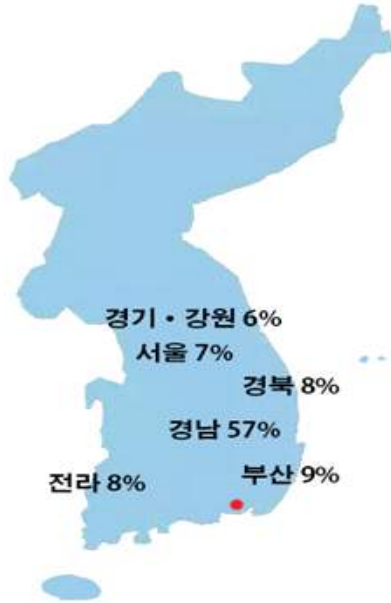
출처: 국가정보원 (1978),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 1977-1986, 제1무임소장관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성과를 이뤄내 전국각지의 젊은 남성들이 창원 기계공업기지로 일자리를 찾아오게 된다. <그림 4-3>은 전국각지에서 창원기계공업기지로 이주한 인력들의 출신지는 나타내는데, 경남 57%, 부산 9%, 호남 8%, 경북 8%, 서울 7%, 서울·강원 6% 등 전국에서 창원 기계공업기지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9>의 노동자 연령비율도 18-20세의 노동자가 전체의 20.52%인 6,213명, 21-29세의 노동자가 전체의 52.01%인 15,757명, 30-39세의 노동자가 전체의 22.84%인 6,947명으로 39세 이하의 젊은 이주자가 전체의 95.47%를 차지하는 등 초기의 정부가 원했던 젊고 오랜 기간 일을 할 의지가 있는 남성들이 전국각지에서 몰려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남성들에 대하여 보다 소상한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창원기계공업기지에서 40년간 근무한 65세 한OO씨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다. 그에게 당시 어떤 경유로 창원에 이주했는가라는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서울에 이주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병역 때문에 내려왔어요. 박정희가 자주국방 외치면서 무기개발을 할 때 방산업체 등 기계공업 위주의 업체들이 최후방인 창원에 이주해요...(중략)..여기서 40년 정도 일을 했어요. 오래한 사람도 있고 병역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반반 정도라고 봐요. 남아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은퇴할 때까지 일을 했지.”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과 창원기계공업기지 장기인력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남성들이 대체근무의 혜택을 받고 창원에 이주하게 되고 그들 과반수가 창원에 남아 새롭게 건설된 도시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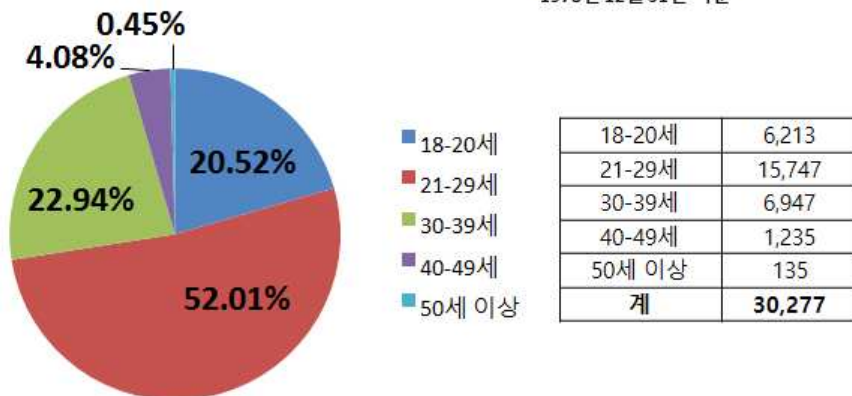
<그림 4-3> 이주노동자 출신지역

출처: 昌原機械工業公園 編 (1979), 昌原基地五年史, pg.277, 280, 재가공

<표 4-9> 창원기계공업기지 노동자 연령비율

창원공업기지 노동자 연령비율

1978년 12월 31일 기준



18-20세	6,213
21-29세	15,747
30-39세	6,947
40-49세	1,235
50세 이상	135
계	30,277

출처: 昌原機械工業公園 編 (1979), 昌原基地五年史, pg. 277, 280, 재가공

(3) 기술교육

이렇게 이주한 노동력의 교육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업기술학교들을 설치했다. 창원기계공업기지 초기의 기술교육시설은 <표 4-10>과 같다. 다양한 기술교육시설에서는 새롭게 이주한 노동자들과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화학공업에서 필요한 숙련노동력의 생산을 책임졌다.

<표 4-10> 창원기계공업기지 기술교육기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 1977년 개교, 1989년까지 기계공 5,587명 배출
- 졸업생의 97% 취업

무학고등기술학교

- 1966년 개교, 1977년 증설
- 1987년 3월 5일 현재 1,426명의 재학생

한백기계훈련원

- 1976년 9월 2일 벨기에와 공동으로 개설
- 1987년 2월까지 총 4,007명 수료

창원기능대학

- 1980년 3월 개교
- 설립당시 국내유일의 기능장 교육시설
- 1989년 2월까지 총 2,111명의 졸업생

출처: 昌原機械工業公園(1990), 昌原基地十五年, pg. 241-252

3. 창원기계공업기지의 계획

중화학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기술자들을 만들어 내고 그들의 이탈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만 있다면 해당 산업의 경기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도시가 될 것이다. 창원기계공업기지가 기존의 다른 산업단지들과 차별되는 이유는 계획단계에서 중화학공업의 노동력의 교육과 유지를 위한 도시를 계획했다는 점이다. 본 절에서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 해두고 건설된 창원기계공업기지의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 경공업단지의 마산 계획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1) 법규

1970년을 전후로 하여 국토와 산업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지방공업개발법(197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공업배치법(1977), 지방공업개발법(1977) 등이 제정되어 전국 산업단지개발의 법적근거가 된다. 박인(2012)은 이 시기에 해당 법률들을 근거로 하여 건설된 공업단지에 대하여 “지방분산과 지방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지방공업단지와 민간공업단지는 그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순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역시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건설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지만 관리부분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법적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1975년 12월 31일 공업단지관리법(법률 제2843호)이 제정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업단지는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조성된 수출산업공업단지⁴²⁾와 수

42) 국가기록원의 홈페이지(<http://theme.archives.go.kr/next/industry/special1960.do>)에서는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근거하러 “1966년 2월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1단지가 서울 구로동에 개발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서울시와 인천지역에 총 6개의 단지가 조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조성된 수출자유지역의 공업단지⁴³⁾ 그리고 그 외의 지방공업단지와 민간공업단지로서 공업단지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24개의 공업단지로 구분되게 된다⁴⁴⁾ (박인, 2012). 이 후 공원단지관리법은 공업배치법과 통합되어 기존의 법안들은 폐지가 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1991. 1. 13 법률 제4212호)로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법제 역시 2002년 12월 개정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1)로 변경된다. 그 이후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 12월 27일 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4268)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건설,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오늘날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역시 이 두 법의 영향 하에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관련 주요 법률을 정리하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우리나라 산업단지관련 주요 법률

1973.12.24. 산업기지개발촉진법(법률 제2657호) 제정
1975.12.31. 공업단지관리법(법률 제2843호) 제정
1977.12.23. 공업배치법 제정
1990.01.1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4212호) 제정 (공업단지관리법과 공업배치법을 통합)
1990.12.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4268) 제정
2002.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1호) 개정

출처: 법제처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조성당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법률은 1973년 12월 24일 제정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법률 제2657호)이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건설부장관의 직속 산업단지건설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의도대

43) 마산수출자유지역은 해당 법제를 근거로 세워졌다.

44) 박인(2012)은 “24개의 공업단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창원기계공업단지, 경상북도의 대구 지방공업단지와 포항철강공업단지, 전라남도의 여천공업단지·광주지방공업단지 및 목포지방공업단지, 전라북도의 전주지방공업단지, 충청북도의 청주지방공업단지, 충청남도의 대전지방공업단지, 강원도의 춘천지방공업단지와 원주 지방공업단지, 경기도의 인천 지방공업단지·성남 지방공업단지·인천 기계공업단지 그리고 서울의 영등포 기계공업단지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로 각 지역에 중화학공업단지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을 통해 울산, 창원, 여천 등 동남해안 지역에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가 개발되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주요내용은 <표 4-12>와 같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핵심은 건설부 장관의 감독 하에 작동하는 산업기지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중화학공업 단지를 빠르게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산의 법제와는 다르게 중화학공업단지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된다. 따라서 여러 관계부처들과 얽히게 되지 않아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에서 초기자본금 1,000억 원을 지원할 정도로 국가핵심 사업으로 정부의 큰 기대감을 느낄 수 있다.

<표 4-12> 산업기지개발촉진법

<p>제1조 (목적) 이 법은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지와 수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기초조사) 건설부장관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 및 그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행하여야 한다.</p> <p>제7조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기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시행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산업기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8조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3조 (자본금 및 출자) ①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p> <p>제55조 (감독) 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⁴⁵⁾

법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첫째 수출자유무역법에 의해 건설, 관리되는 마산수출자유지역보다 국가산업단지에 속한 창원기계공업기지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하에 운영되는 국가핵심 산업단지라는 점이다. 둘째,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보다 일원화된 체계 하에 산업단지 건설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식인 여러 부처가 협의를 통해 건설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속도감 있게 정부가 원하는 산업단지의 형태를 구현할 수 있었다. 그 후, 산업단지 관리와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안정감 있는 운영을 한 점을 보았을 때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산업단지 건설과 운영 및 관리를 분리한 것이라는 점을 추측 해볼 수 있다.

2) 조성기관

<표 4-13>은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조성기관들을 나타낸다. 창원기계공업기지계획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들과 개발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총괄 계획을 맡았으며 기지조성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건설기능이 추가되어 신설된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맡았다⁴⁶⁾(<그림 4-4> 참고). 또한 제반시설을 위한 공사도 상공부, 경상남도, 한국기계공업공단, 산림청, 철도청,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하고 마산에 비하여 상위기관에서 책임졌다. 따라서 당시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기대감과 집중도에서 마산과 창원은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45)

<<http://law.go.kr/lInfoP.do?lsiSeq=2582&ancYd=19700101&ancNo=02180&efYd=197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46)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73. 12.24.

<<http://www.law.go.kr/lInfoP.do?lsiSeq=9354#0000>>

<표 4-13>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조성 기관

사 업 항 목	주 관 부 서	비 고
계 획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국무총리, 장관 및 전문가로 구성
기지조성총괄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 수자원개발공사에 산업기지 건설기능을 추가 부여하여 설치
상 수 도	산업기지개발공사	
공업용수	산업기지개발공사	
기간도로	한국도로공사	
철 도	철 도 청	
전 기	한 전	
통 신	체 신 부	
아파트건립	한국주택공사	
조 경	산림청 및 경상남도	
분 양	한국기계공업공단	
기지관리	한국기계공업공단	
이주대책	경상남도	
투자알선	상 공 부	
항 만	건 설 부	

출처: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1973, 9.10 재구성

수자원공사의 사장이었던 안경모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했을 만큼 박정희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림 4-5> 참고). 당시 안경모는 경부고속도로 건설(1968년)을 주도했고, 소양강댐(1967년), 안동댐(1971년) 건설과 구미(1969년), 여천 지역의 공업단지 조성(1967년)을 주도하는 등 각종 건설 사업을 주도했던 박정희가 신뢰했던 핵심인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4> 산업기지개발공사 현판식

출처: 국가기록원, 1974



<그림 4-5> 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 안경모

출처: 매일경제 1974. 2. 2

조성기관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창원의 경우 강력한 중앙단체에서 사업을 총괄했으며 중화학공업육성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반시설을 위한 관계기관들도 사업초기부터 참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마산계획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한국주택공사의 참여나 조경을

위한 산림청과 경상남도의 참여는 당시의 중화학공업육성위원회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때 그것을 지원하기위한 시설들을 명확하게 관리하여 계획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3) 소요예산

<표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산임해공업단지와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소요예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차이점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이다. 마산임해공업단지의 예산은 약 16억 원 정도였다. 이에 반해 창원기계공업기지는 1차 사업을 포함한 초기사업계획에만 지원시설건설비용 176억여 원, 용지조성비용 285억여 원 등 총 462억 3,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표 4-14>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단지조성	17,654
토지정비	5,060
가 로	3,056
상하수로	1,620
하천개수	394
보 상 비	5,430
조사설계비	197
관 리 비	1,070
이 자	827
지원시설	28,584
기간도로	3,191
주거도로	2,540
공업용수	3,400
항 만	18,500
철 도	553
동 력	150
아 파 트	250
계	46,238

출처: 창원기계공업기지계획 1973 재구성

마산과 창원의 차이점은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등의 추가계획이 없었던 마산수출자유무역 계획과는 다르게 창원기계공업기지계획에는 주거지역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예를 들면, 창원기계공업기지 계획의 경우 주거도로를 위한 예산으로 25억 4000만원을 책정했으며 기지 내 사원 아파트를 위한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계획되어있다. 물론 이는 극히 초기 산업단지의 필수 수요를 위한 기지 내 주거시설이었으며 창원에서는 1983년 창원도시기본계획이 계획⁴⁷⁾되어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주거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마산의 계획과는 구별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산의 경우와는 다르게 창원기계공업기지는 국가적인 자원이 투입된 대규모 중화학공업육성사업이었다.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1969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예산은 3,243억 원 정도로⁴⁸⁾ 4년 동안 매해 4억여 원씩 집행예정이었던 마산임해공업단지 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할 정도였다. 1973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74년 8월에 완공하는 약 9개월의 짧은 공사기간이 예정되었을 뿐 아니라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약 462억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1973년 당시 6,593억 원이었던 정부예산⁴⁹⁾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계획이 기지 조성기관인 한국수출산업공단에 대부분의 세부내역을 일임하고 조성계획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과 반대로 창원기계공업기지계획에서는 기지의 세부 공사내역 역시 자세하게 계획하고 있다. <표 4-15>와 <표 4-16>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도로의 폭이나 아파트의 총 평수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자금의 확보계획도 세세하게 세워졌다.

47) 창원시, 창원도시기본계획(안), 1983

48) 경향신문, 새해豫算 확정, 1968.12.3

49) 경향신문, 새해豫算 6千5百93億원, 1972.12.2

<표 4-15> 창원기계공업기지 부대비 세부내역

사업명	총체계획		1차계획			투자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기간	사업량	사업비	기간
단지조성	398만평	17,654	106만평	5,287	73.11~74.8	292만평	23,916	
정지	토공량 17,500,000m ²	5,060	토공량 4,080,000m ²	1,167		토공량 13,420,000m ²	3,893	
가로	폭30m,11km;가로25m,21.5km	3,056	5km;5.1km	1,390		6km;16.4km	1,666	
상하수도	46.2km	1,620	16.6km	267		29.6km	1,353	
하천개수	8.2km	394	5	250		3.0km	144	
보상비		5,430		1,590			3,840	
조사설계비		197		59			138	
관리비		1,070		318			752	
이자		827		246			581	
지원시설				4,668			23,916	
기간도로	폭50m,10.5km;폭30m,4km	3,191	폭24.4m,10.5km	1,331	73.9~74.12	폭50m,10.5km	1,860	
주거도로	폭25m,25km	2,540				25km	2,540	
공업용수	20만m ² /일	3,400	취수송수설비	2,107	73.8~74.12		1,293	
항만	접안연장2.6km	18,500	400m	830	74.4~74.12	2.2km	17,670	
철도	12.9km	553				12.9km	553	
동력	15km	150	15km	150	74.4~74.12			
아파트	50세대568평	250	50세대568평	250	73.10~74.6			
총계		46,238		9,955			36,283	

출처: 국가기록원, 창원기계공업기지계획, 1973

<표 4-16> 창원기계공업기지 부대비 확보계획

가.단지조성비	가칭산업기지개발공사는입주기업체의선수금및국민출자기금의 용자금을받아조성한다.단,신용대출로한다.
나.지원시설비	
(1)기간도로	1차년기간도로건설비984백만원은한국도로공사가기책하여시공 하고그원리금은74년도정부예산에게산하여상환한다.잔여공사는 연차별계획에의거국고부담으로시행한다.
(2)공업용수	(가)본창원기계공업단지에소요되는공업용수는마산지구,수출자 유지역,진영,진해지구및급수에필요한용수를일괄급수할수있는광 역수도로입안.
	(나)마산지구,수출자유지역,한일합섬등의용수수요가급증하고있 어진해지구의사용량(20천톤)을마산지구에전용하는사업을경남 도가시행중.
	(다)한일합섬의 제2차 공장 확장으로'74.10부터현시설용량으로 는용수수요를충족할수없어진체계획에따라터널등공사기간이장 기간소요되는공정을경남도가시행하여'73.10에 착공하도록 조 치하고 잔여공사는'77.4 예산으로 정부가 시행 계획.
(3)항만	연차별계획에 따라 국고부담으로 시행한다.
(4)철도	철도사업특별회계로 철도청이 시행한다.
(5)전기	기지까지의인입외선은한전이자체자금으로시행하고단지내간선 은국지조성비로조성기관에서시행한다.
(6)통신	전신전화는 통신사업특별회계로D.D.D.화를 체신부에서 시행한 다.
(7)배수시설	단지와연결된배수시설은기지조성비로조성기관에서시행한다.
(8)아파트건립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자금으로 건립한다.
(9)후생시설	기본계획에서결정된위치에민자를투자하여실시한다.
(10)기지주변조경	산림청및경상남도가계획을수집하여자체예산으로실시한다.

출처: 국가기록원, 창원기계공업기지계획, 1973

4) 사업규모

<그림 4-6>는 총 1,200만평으로 계획된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의 기본구상도이다. 창원기계공업기지건설계획에서 나타나는 토지이용의 특징은 계획단계부터 공장부지와 이를 지원하는 부지를 마련하여 배후도시를 건설하려는 점에 있다. 공단을 지원하는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중화학공업단지에서 보유한 실력 있는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고 그들이 이 단지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중요했다. 오철원(2006)에 따르면 박정희는 ‘중화학공업화와 80년대의 미래상’에 관한 보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단을 설계할 때 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어. 울산공단을 건설할 때 공장지역만 덩그러니 결정해 놓으니, 후에 울산시가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골치를 앓고 있지 않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창원에 건설하는 중화학공업단지에 앞서 건설된 울산 등의 중공업단지를 건설할 때는 도시계획을 하지 않아 후에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의견이 반영되어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은 주거지역과 복지 계획까지 준비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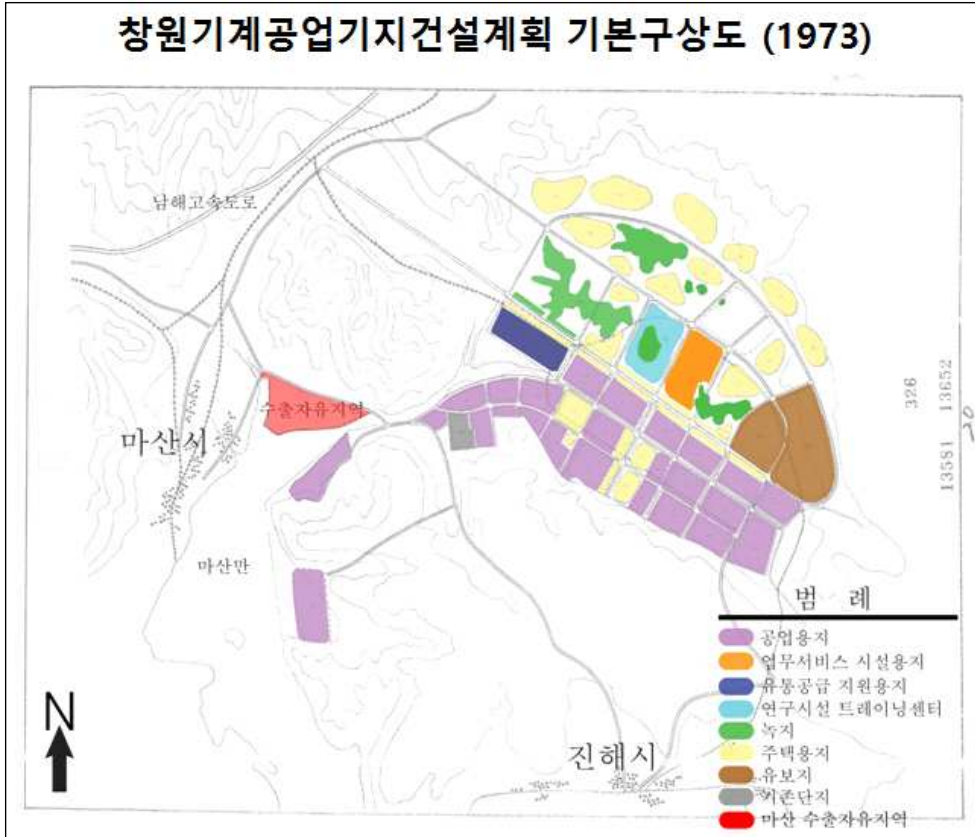
창원기계공업기지건설계획 기본구상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부를 동남향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남부에는 공장지역을, 북부에는 주택, 교육, 지원용지를 확보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17>은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면적 계획이다. 계획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서에 기지의 추가확장에 유념하라는 문구가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점은 정부에서 추가적인 공단확장과 도시계획을 착공이전부터 유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세한 도시계획은 1983년 계획된 창원도시기본계획에서 준비 및 설계 되었다.

창원기계공업기지에 대한 최초의 계획인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1973)에서는 총면적을 1,200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공업지역

은 398만 평이고 그 외의 지역은 주택 및 지원용지로 구성된다. 최초의 계획에서 공장용지는 1차 106만평과, 2차 292만평으로 나뉘어 계획될 예정이었고 36개 업종 (소재, 요소부품, 산업기계, 정밀기계, 전기기계, 선박용 기계)의 104개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지원용지에는 연구시설과 트레이닝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비숙련공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술학교 등이 실제로 세워지게 된다. 주택용지는 당시 계획에 따르면 면적만 나뉘어져 있고 구체적인 인구계획규모는 설정되어있지 않았다. 다만, ‘입주 외국인을 위한 주거 및 환경시설을 완비 한다’,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단지 내 주민 시설의 확보와 배후도시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한 점을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주택건설을 예정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인구계획은 1974년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화학공업기지조성구역확정 보고서에 비로소 나오게 된다. 이 보고서는 1973년 초기계획보다 다소 늘어난 1,311만 4,000평에 계획인구 약 20만 명의 산업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창원기계공업기지건설계획 기본구상도 (1973)



<그림 4-6>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기본구상도

출처: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기본구상도, 1973, 재구성

<표 4-17>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면적 계획

구상	면적 (만평)	비고
공업지역	398	장차 공업지역 확장에 대비
유보지역	67	
주거지역	245	
녹지지역	370	
기타 공업용지	120	
계	1,200	

출처: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1973

지금까지 논의된 마산과 창원의 산업단지 계획을 비교하면 <표 4-18>과 같다.

<표 4-18> 마산과 창원의 산업단지 계획정리

		마산임해공업단지조성계획 (1969.6.19)	창원기계공업기지계획 (1973.9.10)
조성기관	계획	상공부, 한국수출산업공단, 마산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국무총리산하)
	기지조성	한국수출산업공단	산업기지개발공사 (신규조성)
소요예산	조성비	16억4,900만원(79%)	176억5,400만원(39%)
	부대비	4억1,800만원(21%)	285억8,400만원(62%)
	계	20억8,700만원(100%)	462억3,800만원(100%)
사업규모	면적	50만1,800평(공업용지)	1,200만평 (공업용지518만평+주거 및 녹지지역 682만평)

출처: 국가기록원,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 창원기계공업기지계획

4. 창원 도시의 변천

도시 자체가 산업을 위해 건설된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산업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본 절에서는 창원의 시기별로 창원에 산업구조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가 도시의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산업구조

<표 4-19>는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연도별 산업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창원의 사업체수는 197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에는 2,388개까지 늘어났다. 생산액과 수출액 역시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현재 고용인원이 9만1,897명에 달한다.

대기업유치를 통해 생산과정을 고도화하고 기계공업기지의 안정을 모색하던 창원기계공업기지는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1983년부터 다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된다. 1980년대 초반 창원기계공업기지를 선도했던 품목은, 가전기기, 플랜트, 자동차부품, 특수강, 공작기계, 원동기, 중전기기, 이륜차, 주단조, 광학기기였다.⁵⁰⁾ 초기의 요소부품생산에서 상당한 고도 공업화를 이룩한 점을 알 수 있다.

50)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중화학공업의 시작과 미래: 동남공단 20년사, 1996, pg. 330

<표 4-19> 창원 기계공업기지 연도별 현황

연도	입주선정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	가동율(%)
1974	24	-	-	-	-
1975	44	15	1	1,151	-
1980	120	4,546	235	28,860	-
1985	184	20,573	605	47,179	79
1990	315	59,690	1,446	80,084	81.8
1994	432	103,889	2,691	73,797	83.1
1995	485	129,221	3,319	77,350	84.4
2000	1,026	182,780	-	72,000	-
2003	1,294	243,000	-	73,000	-
2015	2,388	536,063	23,967	91,897	92.3

출처:

동남지역공업관리공단, 산업경제동향, 1995 3/4분기

창원국가산업단지현황 2012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창원혁신클러스터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자문연구에서 취함

현재에도 특징은 그대로 남아있어 <표 4-20>에 나타나듯이 대기업 중심의 국내최대 기계 산업단지로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연결된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각 업종별로 선도 대기업이 존재하며 중소기업은 이를 보조해주는 요소부품들을 공급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는 2012년 기준 2,153개의 기업 중 98%가 종업원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고, 2%인 48개사가 대기업이다. 48개의 대기업은 51.7%의 고용인원을 고용하고 전세 생산액의 78%를 생산하고 89.7%의 수출액을 차지한다. 나머지 2105개의 중소기업은 전체고용의 48.3%, 생산액의 22%, 수출액의 10.3%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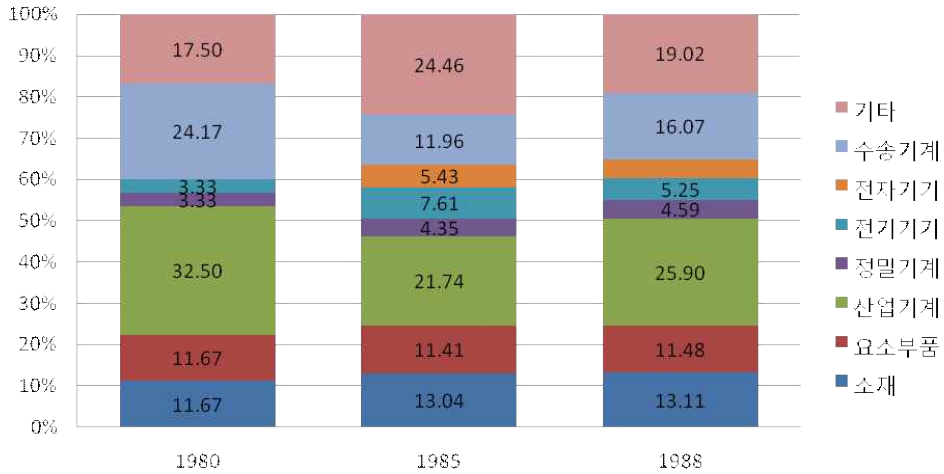
<표 4-20> 2012 창원국가산업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황

구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체	개사	2,153	48	2,105
	비율 (%)	100	2	98
고용인원수	명	91,897	47,552	44,345
	비율 (%)	100	51.7	48.3
생산액	억 원	536,063	38,338	10,853
	비율 (%)	100	7.8	2.2
수출액	백만 불	23,967	2,107	241
	비율 (%)	100	89.7	10.3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현황, 2012

창원기계공업기지의 198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7>과 <표 4-21>은 1980년대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업체의 변화를 나타낸다. 1980년대의 업체들은 비교적 비슷한 수치로 유지된다. 산업기계분야, 수송기계, 요소부품, 소재 등 여러 분야로 구성된 이 기업들은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나 그 비율은 비슷하다. <그림 4-8>과 <표 4-22>에 나타난 생산총액의 변화 역시 총액은 크게 증가하나 그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업체의 변화 (%)



<그림 4-7> 1980년대 창원기계공업기지 업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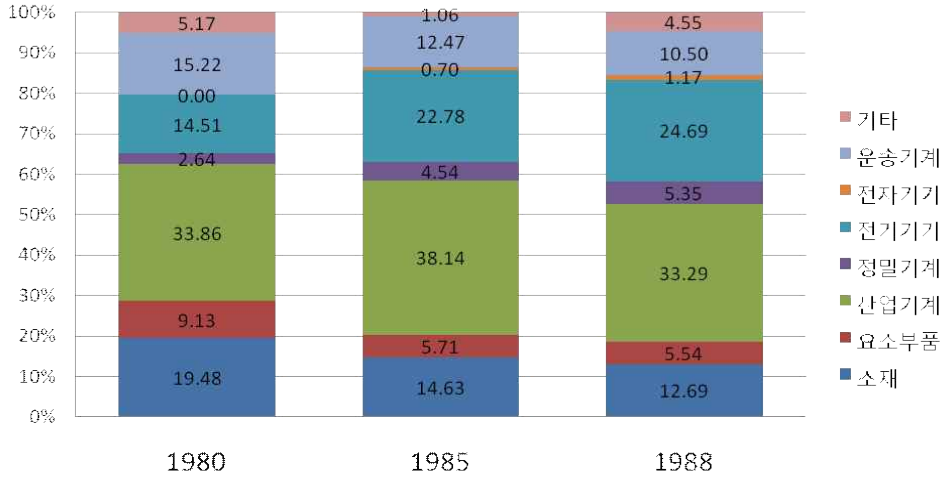
출처: 창원기계공업공단, 창원기지 15년사, 1990, pg 436

<표 4-21> 1980년대 창원기계공업기지 업체의 변화

	소재	요소부품	산업기계	정밀기계	전기기기	전자기기	수송기계	기타	계
1980	14	14	39	4	4	-	29	21	120
1985	24	21	40	8	14	10	22	45	184
1988	40	35	79	14	16	14	49	58	305

출처: 창원기계공업공단, 창원기지 15년사, 1990, pg 436, 단위:개

생산총액의 변화 (%)



<그림 4-8> 1980년대 창원기계공업기지 생산총액의 변화

출처: 창원기계공업공단, 창원기지 15년사, 1990, pg 436

<표 4-22> 1980년대 창원기계공업기지 생산총액의 변화

	소재	요소부품	산업기계	정밀기계	전기기기	전자기기	운송기계	기타	계
1980	1,477	6,92	2,567	200	1,100	-	1,154	392	7,582
1985	3,009	1,175	7,847	934	4,686	145	2,565	218	20,579
1988	5,702	2,489	1,496	2,405	11,096	524	472	2,045	26,229

출처: 창원기계공업공단, 창원기지 15년사, 1990, pg 436, 단위: 억 원

1990년대와 현재의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산업의 변화는 어땠을까? 1995년의 업체에 대한 통계기준이 바뀌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업체의 비율을 유지했다. <표 4-23>과 <그림 4-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과 1995년의 업체수를 비교하면 세배이상 증가했고 기계업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철강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4-24>와 <그림 4-10>에 나타난 고용인원의 변화를 토대로 평가했을 때 전체적인 산업에서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2000년대, 그리고 현재 모두 60퍼센트

정도로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중화학공업, 그중에서 기계공업의 중심지로 1973년 계획된 창원기계공업기지와 그 배후도시는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초기에 세워진 그 목적대로 기계공업의 숙련노동공의 유지에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23> 창원기계공업기지 업체 수 변화

	음식/의복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계
1995	9	9	40	24	13	137	239	55	91	6	623
2012	5	2	25	37	5	71	1,347	409	238	14	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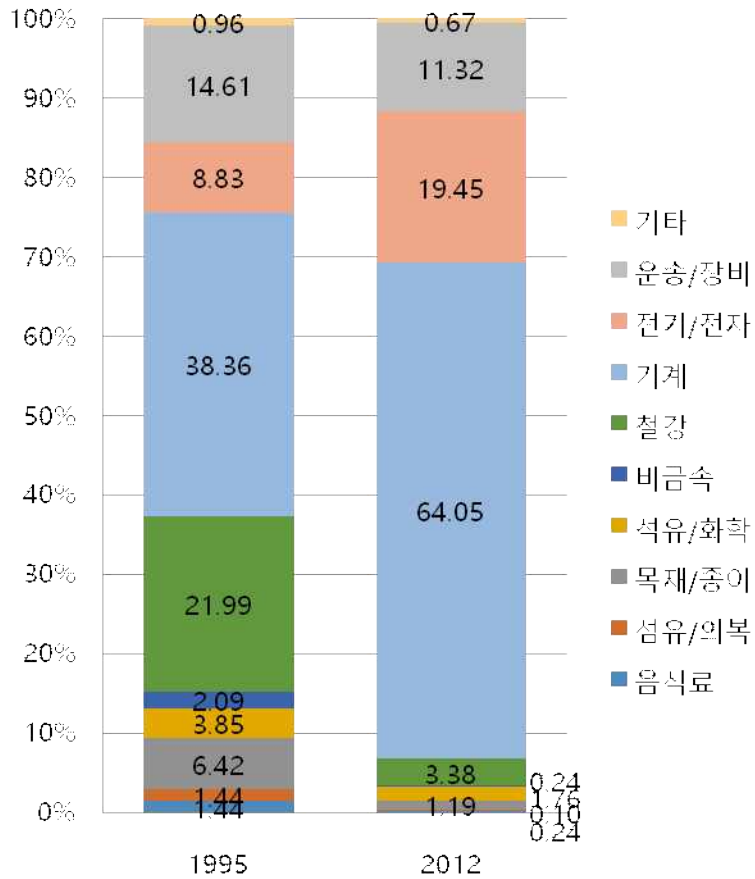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1995), 산업총조사 보고서

추재호, 창원공단의 현황과 발전전략 1996 재인용

창원국가산업단지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업체의 변화 (%)



<그림 4-9> 창원기계공업단지 업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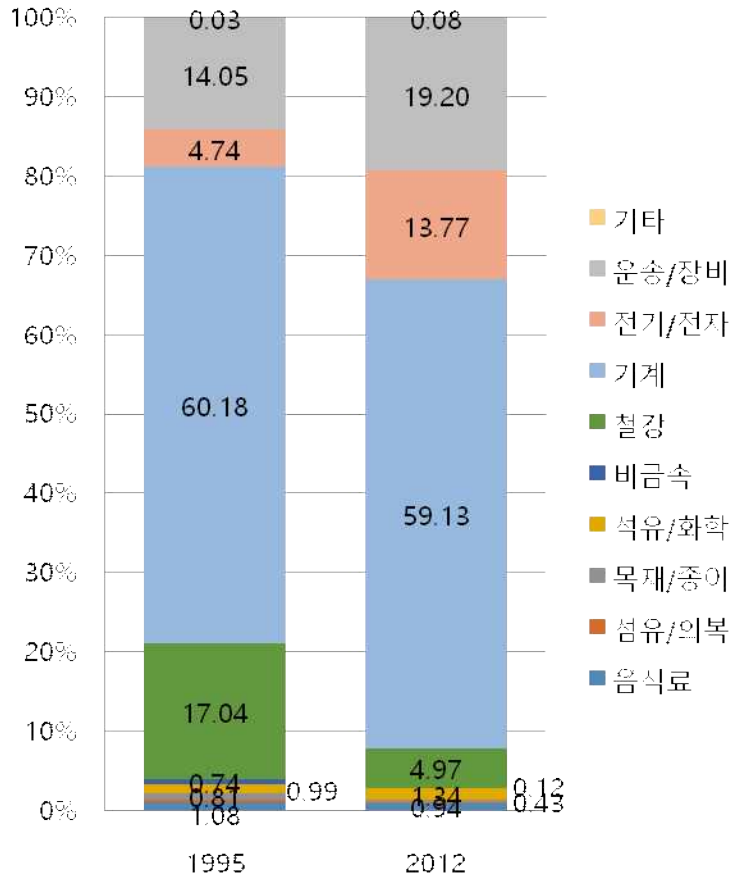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1995), 산업총조사 보고서

추재호, 창원공단의 현황과 발전전략 1996 재인용

창원국가산업단지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고용인원의 변화 (%)



<그림 4-10> 창원기계공업단지 고용인원의 변화

출처:

경상남도 (1995), 산업총조사 보고서

추재호, 창원공단의 현황과 발전전략 1996 재인용

창원국가산업단지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4-24> 창원기계공업기지 고용인원의 변화

	음 식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 금 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계
1995	1,287	396	967	1,187	885	20,335	71,805	5,653	16,769	38	119,322
2012	861	16	391	1,230	112	4,548	54,157	12,616	17,586	71	91,588

출처:

경상남도 (1995), 산업총조사 보고서

추재호, 창원공단의 현황과 발전전략 199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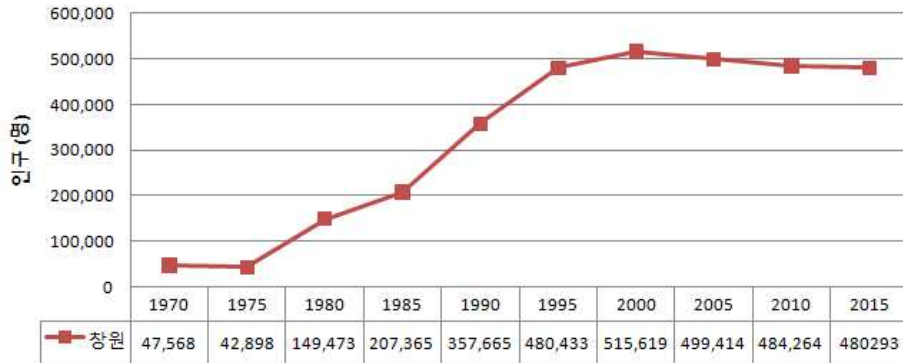
창원국가산업단지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2) 인구구조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산업의 변천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공업단지가 건설된 초기의 산업구조와 현재의 산업구조는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품은 조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살펴봤다. 이를 토대로 창원의 인구구조를 예측해보면 기존의 인구구조가 산업구조와 같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본 소절에서는 창원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여 창원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림 4-11>은 창원인구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전까지 개발되지 않은 빈 토지로 남아있던 창원지역은 1974년 창원기계공업기지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로 창원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970년 4만7,568명에 불과했던 창원의 인구는 창원기계공업기지 토지수용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된 인구 때문에 약 5,000명 정도 감소하지만 늘어나는 공장수와 비례하게 1980년 14만 9,473명, 1985년 20만 7,365명, 1990년 35만 7,665명, 1995년 48만 433명, 2000년 51만 5,619명으로 해마다 엄청난 인구를 기록한다. 그 이후 창원의 인구증가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2000년 이후 큰 변화는 없지만 2015년 기준 48만 293명으로 약 3만 명 정도 정도 줄어들었다.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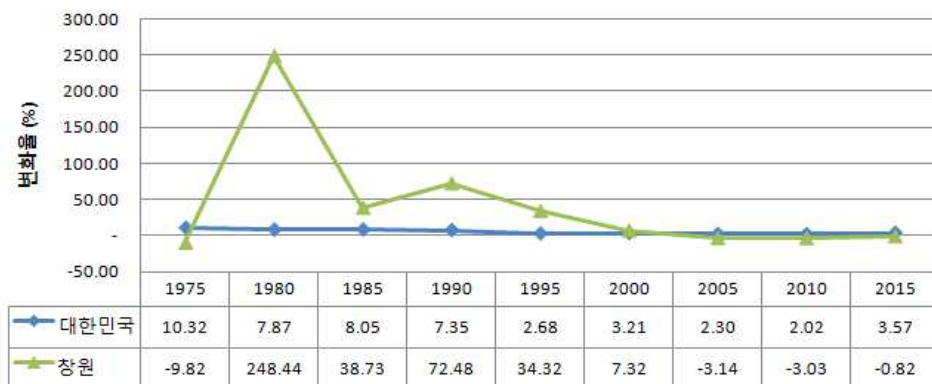


<그림 4-11> 창원 인구변화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

<그림 4-12>가 보여주는 인구변화율을 토대로 창원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창원의 인구는 1975년에 비해 무려 3.48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해마다 인구는 30% 이상의 고 성장을 기록하다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며 2000년을 기점으로 2015년 현재까지 약 3퍼센트 대의 소폭 하락을 기록한다.

인구 변화율



<그림 4-12> 창원 인구변화율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

<그림 4-13>은 창원 성비의 변화를 나타낸다. 창원의 성비는 마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의 존재이유인 창원기계공업기지와 그 형태를 같이한다. 산업기지의 본격적인 시작인 1980년 이전의 성비에서 창원은 전국의 성비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1980년부터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증가하여 1980년에는 여성에 비해 10%이상 남성의 인구가 많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긴 하지만 2000년 이후 여성대비 105%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창원기계공업기지의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뜻한다.

성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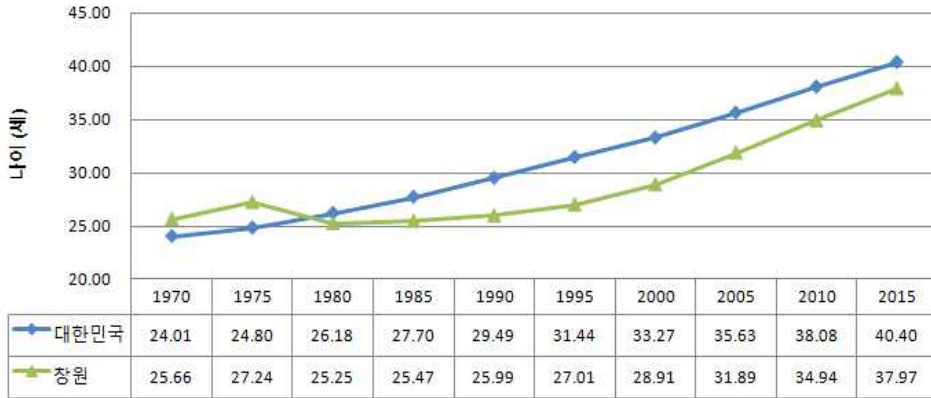


<그림 4-13> 창원 성비의 변화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

<그림 4-14>가 보여주는 것처럼 창원의 1970년도와 1975년도의 창원 은 지역이 아직 공업화가 되지 못하여 농촌도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평균연령도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된 1980년도 이후를 보면 창원의 평균연령은 전국보다 약 3세가량 적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차이는 비슷하게 유지되며 2015년 현재에도 창원은 전국대비 약 2.43살 젊은 도시이다.

평균연령의 변화



<그림 4-14> 창원 평균연령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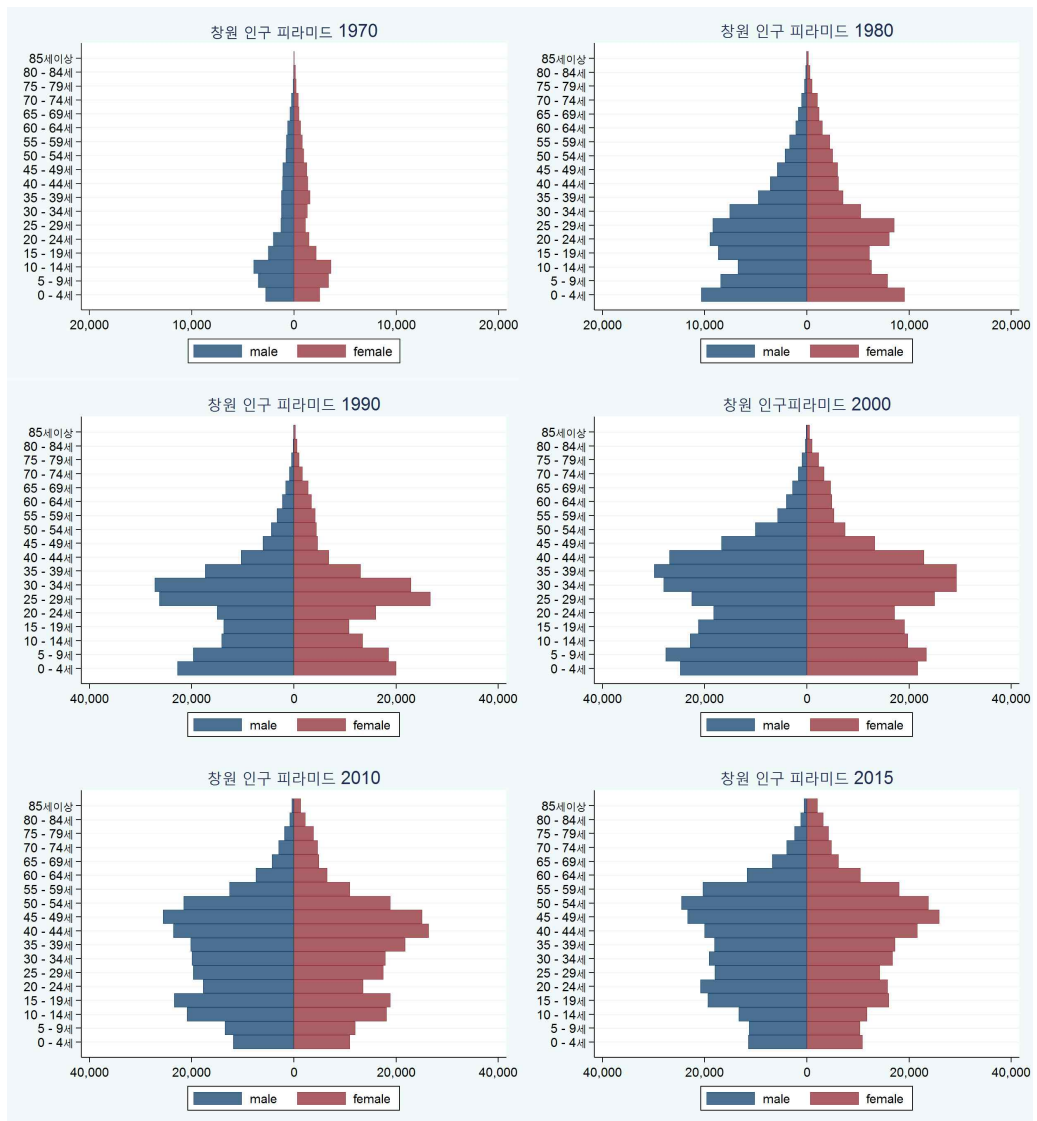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 재구성

전국과 창원의 평균연령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뜻은 창원 초기에 이러한 비율이 생기게 된 원인이 다른 외부 변화요인 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그 외부요인이란 창원기계공업단지의 산업구조와 그에 속해있는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앞선 소절에서 창원의 산업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창원기계공업단지 초기에 이주한 전국의 젊은 남성노동자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현재의 평균연령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남녀 성비의 변화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국 평균연령과의 차이가 약 3세 정도로 꾸준히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은 새로운 노동력의 유입이 기존 노동력의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중화학공업의 숙련기술자 위주의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창원공단은 외부에서 젊은 기술공이 들어와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보다 기존에 일하고 있는 숙련노동공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창원의 노동력은 차츰 노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며 기존의 중화학공업이 쇠퇴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되면 창원기계공업기지의 초반처럼 숙련기술자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4-15>는 창원의 인구구조 변화를 나타낸 인구피라미드이다. 창원에 기계공업기지가 건설되기 이전 창원의 인구구조는 당시 대한민국 인구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1980년부터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는데 1980년의 경우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의 비율이 그 이전에 비해 월등히 증가했고 0세에서 9세사이의 인구도 동시에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0년의 경우는 25세에서 34세의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동시에 0세에서 9세인구도 비슷한 비율로 늘어났다. 이렇게 노동연령층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전국에서 창원공단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피라미드에서 유아, 어린이 인구가 증가한 것은 이들 노동자들이 이주하여 가정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 2000년대가 되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연령대만 올라갈 뿐 이러한 인구구조의 형태는 그대로 발견된다. 2015년 현재의 창원의 인구피라미드역시 2000년대 최대였던 30세에서 44세인구가 15년의 세월을 따라 45세에서 59세가 되었을 뿐, 아직도 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원 일정하게 유지되는 산업구조와 숙련노동공이라는 특징이 창원 도시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창원기계공업기지가 이들 연령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되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창원의 산업구조는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새롭게 대체하게 될 20대 노동력이 창원의 산업에 매력을 느끼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창원의 산업단지들은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계공업에 집중된 산업구조에서 기인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외국의 피츠버그나 디트로이트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같은 성격의 문제인데 한 산업으로 호황을 누린 도시들은 해당 산업의 경기가 침체되거나 새로운 대체산업의 등장으로 사장될 때 동시에 문제를 겪게 된다. 현재까지 정리된 창원기계공업기지의 현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 기계 산업 분야에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조선업이나

철강업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올해 수집되는 자료에서는 기계 제조업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5> 창원 인구 피라미드

출처: KOSIS, 창원시 인구, 재구성

이 지역에서 40년간 일을 한 한OO씨에게 위의 두 가지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시 질문해보았다. 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일한 사람들이 58~60세 정년인데 은퇴를 하죠. 이제 은퇴시즌이 된 거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일을 하죠. 알바 형식으로. 은퇴 하고도 그 분들은 계속 일을 많이 하시죠.”

“(기계업의 체감경기는) 아주 나쁘죠. 기계산업 반도체, IT산업, 자동차 같이... 자동차를 예로 들면 엔진이 모터, 전기화가 되면서 기계가 없어지니까... 직업이 바뀌어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기계 쪽도 경기가 나쁘다기 보다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지.”

“젊은 분들은 보면, 기계 쪽에서는 할 수 도 있지만.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부를 창출 한 건데... 회사 연봉도 오르고 기술력도 오르고 월급쟁이라도 부를 이룩한 건데...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힘들잖아, 옛날로 치면 대학을 나오면 관리직 대학 이하는 기능직인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희석되어서 대학교가 관리직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장을 보면 정규대학4년을 나와서, 폴리텍도 나와서 현장에서 기계를 만집니다.”

그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창원에 본격적인 은퇴시즌이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었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나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은 대학교를 나오고 나서 다시 폴리텍 대학에 들어가 기술을 배워 취직할 정도로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좋지 않아 기계공업위주로 집중되어있는 산업이 한번 위기를 맞을 때 주변 회사들까지 연속적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사례를 통해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파급력은 주변지역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킨 점을 이미 확인했다. 그러나 창원기계공업기지는 마산수출자유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주변지역 경제를 떠나 우리나라 전체에 미칠 것이다. 산업도시 건설에서 해당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도시가

시행해야할 정책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창원에도 다가온 것이다.

5. 소결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창원기계공업기지는 기존의 경공업단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중화학공업의 필수 조건인 숙련노동공의 이탈을 막고 그들의 교육을 용이하게 했다. 이렇게 잘 건설된 배후도시의 영향으로 숙련 노동공들은 은퇴시기가 된 현재까지도 도시에 남아 중화학공업의 필수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해낸 사실은 마산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몰락과 같은 현상이 창원에서도 발생할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거대한 도시로 성장한 창원에서 한 쪽으로 편중된 산업구조가 갖는 위험성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V. 결론

1.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경공업단지인 마산에는 도시가 계획되지 않았는데 중화학공업단지인 창원에는 도시가 건설된 이유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두 도시에서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산업구조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마산과 창원은 건설배경부터 산업의 특징, 계획과정 등 모든 면에서 차이점을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두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요인들로 작용했다. 첫째,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던 지방기업가들과 정부의 지방공업화의 결과로 건설되었지만 창원기계공업기지는 당시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 마산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영향을 받아 건설되었다.

둘째, 이와 같은 건설배경은 산업단지의 특징에도 영향을 미쳐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미혼여성공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창원기계공업단지의 경우는 숙련노동공 위주의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로 운영되게 된다.

셋째, 두 지역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큰 차이점을 보인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을 중심으로 상공부, 수출산업공단, 마산시에서 계획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입된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국무총리산하 중화학공업단지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지방공업개발법(197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공업배치법(1977), 지방공업개발법(1977) 등 다양한 법제의 지원을 받아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건설된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달랐던 건설배경과 산업의 종류 그리고 계획과정은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도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경공업단지

성장했던 마산의 경우는 국내 경공업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만 숙련노동력의 안정된 공급과 유지가 가능했던 창원외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의 주도로 건설된 도시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원했던 그 전략에 대하여 평가하고 편중된 산업구조가 같게 되는 구조적 약점에 대하여 지적할만한 근거를 제공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기존에 학문적으로 논의되지 않던 계획도시(planned City) 개념의 산업신도시와 일반적인 산업단지를 가진 도시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갖으나 창원의 사례만을 가지고 모든 산업신도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산업도시들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진행되어 산업단지의 개념에서 발전된 산업도시의 개념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왔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지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연구논문 및 단행본>

- 김정대 (2014), “통합 창원시의 권역 행정구역 이름의 역사”, 경남대학교 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
- 김진영, 강혜정 (2013), “산업단지 1,000개 시대의 도래와 발자취”, 한국 산업단지공단
- 김춘택 (1991), “다국적기업의 노동통제: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문학 박사논문.
- 노상환 (2014), “창원국가산단 소재 기업경쟁력 평가 및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37(1).
- 박배균, 최영진 (2014),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형성을 둘러싼 국가-지방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9(2). pg 113-138.
- 박인 (2012), “산업단지의 개발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 법제처.
- 박형규, 서유석 (2009), “마산시의 도시공간구조: 변천과 변화요인 분석”.
- 오철원 (2006),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을 만들었나”, 동서문화사.
- 이상철 (2008),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초기 발전과정”, pg. 65, 71.
- 이중호, 이철우 (2008), “집적과 클러스터: 개념과 유형 그리고 관련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리학회지」, 11(3), pg. 302-318.
- 최영진 (2014),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창원공단 설립 진사”. 「대한지리학회지」, 49(2). pg. 178-199.
- 허은 (2014), “마산수출자유지역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형성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 pg. 102, 317-356.
- 황주성, 이정성, 김영식, 김병준 (1999), “정보통신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Amin, A. (1999),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on regional*

-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 pg. 365-378.
- Amin, A. and Thrift, N. (1992), *Neo-Marshallian nodes in global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2, pg. 171-186.
- Aydalot, P. and Keeble, D. (1988), *High Technology Industry and Innovative Environments*, London: Routledge.
- Belussi, F., and K. Caldari (2009), *At the origin of the industrial district: Alfred Marshall and the Cambridge school*,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3.2, pg. 335-55.
- Brusco, S. (1982), *The Emilian model: productive decentralisation and social integr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6, pg. 167-184.
- Kim, Sangho (2007), *Current Issues of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pg 7.
- Marshall, A. (1920), *Principles of economics: an introductory volume*, London: Macmillan.
- Nelson, R. and Winter, S. (1982),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ewlands, D. (2003),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Industrial Clusters: Th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European Planning Studies 11, pg. 521-32.
- O'Sullivan (2007), Arthur. *Urban Economics*. Boston: McGraw-Hill/Irwin Print, 이번송 역, pg. 31-48.
- Piore, M. and Sabel, C.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 Roberta Capello (1999), *Spatial Transfer of Knowledge in High Technology Milieux: Learning Versus Collective Learning*

Processes, Regional Studies, 33:4, pg. 353-365

Scott, A. (1988), *Flexible production system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rise of new industrial spaces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2, pg. 171-186.

Scott, A. and Storper, M (Eds) (1986), *Production, Work, Territory*. London: Unwin Hyman.

Storper, M. (1989), *The transition to flexible specialization in the US film industry: external economies, the division of labor, and the crossing of industrial divid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3, pg. 273-305.

<참고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마산자유무역지역 <https://www.ftz.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s://www.e-cluster.net>

창원시청 www.changwon.go.kr

부 록

<마산 인터뷰 전문>

실시 일자: 2016년 11월 28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김영재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인터뷰는 저의 석사논문 “정부주도 산업단지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에 부분 인용될 예정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인터뷰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개요

본 연구는 경공업 제조단지로서 기존의 도시의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그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건설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두 산업단지의 비교를 통해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인 ‘산업과 주거의 통합’이 과연 효과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 마산에 거주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하셨나요?
“16년 거주, 부산에서 이주 했습니다.”

1-2) 마산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마산에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이주를 하였을까요? (마산에서 원래부터 거주하고 계셨다면 일반적으로 이주한 분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부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2)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건설초기 (1970년대)의 핵심 인력은 미혼 여성 근로자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그 핵심 근로자층의 특징이 서서히 없어지며 현재에는 남성근로자 위주의 산업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설은 당시의 산업구성이 경공업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광학기기 등 특화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높은 기술을 가진 숙련기술자들이 필요해지면서 여성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미혼 여성근로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전업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처음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인의 소개로 취업했습니다.”

4)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몇 년도부터 일하셨습니까?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몇 년 정도입니까?

“저는 16년 근속! 다른 사람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10년 미만입니다.”

5) 마산자유무역지역 초기 (1970-80년대)의 근무환경은 어떠했습니까?
(근로시간, 공기의 질, 안전 등)

“잘 알지 못합니다.”

5-2) 현재의 근무환경은 어떻게 변했나요?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6) 과거와 다르게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산업종류가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의 종류가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주로 일본에 본사를 둔 전자회사에서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노동집약적인 일자리는 없어지고, 현재는 기술력에 바탕을 둔 회사들로 변화되었습니다.”

7) 어떤 종류의 산업이 새롭게 생겨났으며 없어진 산업은 무엇인가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산업(기계, 환경, 자동차 부품 등)이 생겨났으며, 섬유, 전자기기, 시계, 광학부문의 산업이 사라졌네요.”

8)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성함, 나이, 성별, 거주지 등)

“윤한욱. 46세. 남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거주중입니다.”

<창원 인터뷰 전문>

<창원 인터뷰>

실시일자: 2016년 11월 25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김영재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인터뷰는 저의 석사논문 “정부주도 산업단지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에 부분 인용될 예정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인터뷰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개요

본 연구는 경공업 제조단지으로써 기존의 도시의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그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건설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두 산업단지의 비교를 통해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인 ‘산업과 주거의 통합’이 과연 효과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 창원에 거주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1976년도에 내려와서 40년이네. 총각 때 내려왔지. 20대에.”

2)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셨나요? 원래 거주하시던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에서요. 나 같은 경우는 병역 때문에 내려왔어요. 병역특례병, 산업체에 일하다가 자격증을 따면, 상공시대에 우리나라 국가에 방위산업을 위해, 예비군 자주국방... 등등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일을 했죠. 평생 방산을 한 사람이에요. 방산 업체에서 나와서 사업을 시작한지 20년 되

있네. 일본 수출 쪽 두루두루...”

“방산업체 등 기계공업 위주의 업체들이 최후방인 창원에 이주해요. 그러니까 영등포에 서울에 있었는데 방산회사가 창원공단으로 이주를 했어요. 여러 회사들도.”

3) 산업체의 회사는 원래 다니시던 회사였던 건가요?

“그렇지.”

4) 창원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창원에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이주를 하였을까요? (예를 들면, 회사가 창원으로 이사를 했다 등)

“그런 동기요. 회사 이전을 하던가, 방산관련으로 내려오던가. 방산파트가 창원으로 내려온 거지. 물론 회사 따라서 내려 온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5) 처음 일을 시작한 년도는 언제입니까?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일을 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일반적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몇 년 정도입니까?

“40년 정도. 대부분 오래한 사람도 있고 병역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반반 정도. 다들 올라가고. 바로 끝나서 올라간 사람도 있고. 반반 정도라고 봐요. 남아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은퇴할 때까지 일을 했지.”

6) 다들 창원에서 결혼한 건가요?

“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선을 해서 결혼은 창원에서 했지. 대부분 젊

어서 내려와서 여기서(창원) 결혼해서 자리를 잡았지.”

7) 1970년대 이주하신 분들이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일 한 사람들이 58~60세 정년인데 은퇴를 하죠. 이제 은퇴시
즌이 된 거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일을 하죠. 알바 형
식으로. 은퇴 하고 나서도 그분들은 계속 일을 많이 하시죠.”

8) 창원신도시의 혜택 (공원, 복지시설, 넓은 도로, 교육시설 등)이 창원
이주 결정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나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든든하고, 환경이 좋았고. 네트워크. 도로, 날
씨, 공기 좋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일일 생활권이 되어서 서울도
어차피 금방 가니까.. 문화시설도 좋아졌고, 단점이라고 하면 서울에 비
해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렇지만 바다도 가깝고 좋아.”

9) 본인이 생각할 때 도시가 사람살기 좋게 잘 만들어 졌나요?

“계획도시로써 사람살기 좋게 만들어 졌어요. 성공적인 도시라고 봅니
다.”

10) 창원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앞으로 계속
거주할 예정이십니까?

“만족도는 90점정도. 만족하니까 눌러 앉아 사는 거지. 10점은 고향을
떠나서 내친인척 동생 어머니 모두 서울에 있어서... 나 같은 경우는 60
넘고 70이 가까우니 까 뼈를 물어야죠. 자녀들은 서울서 살잖아. 사람
사는 게 직장에 따라 눌러 앉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할 때 기계분야니까
눌러 앉게 된 거예요.”

11) 일반적으로 20대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창원단지에서 찾나요? 아니면 타지로 떠납니까?

“젊은 분들은 보면, 기계 쪽에서는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부를 창출한 건데... 회사 연봉도 오르고 기술력도 오르고 월급쟁이라도 부를 이룩한 건데...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힘들잖아. 옛날로 치면 대학을 나오면 관리직 대학 이하는 기능직인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희석되어서 대학교가 관리직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깐..... 그래서 우리 공장을 보면 정규대학4년을 나와서, 폴리텍도 나와서 현장에서 기계를 만집니다.”

“그게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처럼 돼가는 거예요. 기계공업이 자동화되고 기계공업인구가 많이 줄면서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예전에는 80~90퍼센트 제조업이라지만 이제는 서비스업인구가 많아지지. 받은 기계공단 받은 서비스업...”

12) 기계업 체감경기가 어떤가요?

“아주 나쁘죠, 기계산업 반도체, IT산업, 자동차 같이... 자동차를 예로 들면 엔진이 모터, 전기화가 되면서 기계가 없어지니까... 직업이 바뀌어 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기계 쪽도 경기가 나쁘다기 보다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지.”

13) 그러면 창원공단의 산업구조가 변화되었나요?

“변화가 될 거라고 되는데 지금은 변화되어가는 중이라서... 자동차도 무인화... 이것저것 바뀌어가잖아. 기계도 범용화가 되는데...”

“그게 일 자체가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일감이 적어지는 거라.. 기계산업

전체적으로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공급은 늘어드는데 수요가 적어지니까... 일부는 산업이 줄어들어 간다는 거죠. 자동차도 이제는 바뀌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기계분야도 자동화가 되고 팔리는 건 적어지니까 경기가 나쁘다기보다 산업이 변화되어가는 거지.”

“나도 제조업분야인데 그런 걸 항상 느끼고 항상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하면서.. 그거는 자유 민주국가에서 그것은 일종의 경쟁력이구나.”

“우리세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임금도 많이 받고 열심히 성공을 한편인데. 요즘에는 일본, 중국에 수출하고. 대기업도 상대하고. 지금 힘들다고 해도 기본 뿌리가 단단하니까 버틸 수가 있는 것. 묵묵히 일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유지가 되는 것. 구조적으로 보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서비스 쪽 산업에 필요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그대로 인 것 같아요.”

14)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성함, 나이, 성별, 거주지 등)

“한○○, 65세, 남, 창원에서 제조업 공장 운영 중.”

Abstract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of the Government-led Industrial Complex and City:

The Masan Free Export Zone and
the Changwon Machine Industrial Complex

Kim, Youngjae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where light industry was chosen as a leading economic driver of the country in the 1960s, went one step forward to heavy-chemical industry and constructed heavy-chemical industrial districts along the coastal lines of the country in the 1970s to promote the economy. The most distinct difference between light industry and heavy-chemical industry

was that the country created a new city to support the newly built heavy-chemical industrial districts unlike light industrial districts where pre-existing social infrastructure was being used for maintaining the social demands and resources of the industrial districts.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Masan Free Export Zone, where typical features of light industrial districts are found, with the Changwon Machine Industrial Complex, known as the first built heavy-chemical industrial district with a planned c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reason why the heavy-chemical industrial district needed a city while the light industrial district did not need one. Also, the comparison of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with the industrial structure would be able to emphasize the effec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the process of city development.

Masan and Changwon had various differences from the construction background, types of industry, planning process, etc. and they played a great rol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the cities. First, the Masan Free Export Zone was created due to the local entrepreneurs whom had high understanding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local industry strategy of the country, while Changwon Machine Industrial Complex was constructed by the heavy-chemical industry promotion policy, which was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t that time.

Second, these different backgrounds affected the features of these industrial districts; the Masan Free Export Zone was developed with unmarried women workers and the Changwon Machine Industrial Complex was opera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skilled laborers.

Third, two regions have a huge difference from the planning process. The Masan Free Export Zone was planned with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ree Export Zones (1970) with in cooperation of the Department of the Commerce-Industry Ministry, the Export Industrial Corporation, and the Masan City government and relatively less amount of funding was used. On the other hand, the Changwon Machine Industrial Complex was a national plan which was done by the Promotion Committee of the Heavy-chemical Industry, directly under the prime minister, with the support of various legislations such as the Act on Comprehensive Plans for Construction in the National Territory (1963), the Act on Local Industry Development (1970), the Act on the Industrial District Development Promotion (1973), the Act on the Industry Arrangement (1977), the Act on the Local Industry Development (1977).

Different backgrounds, types of industry, and process of planning affected in transition of the cities. Masan, where grew up with light industry had a problem in economy when the competitive power of light industry manufacturing business of South Korea was weakened. However, Changwon could have stable development due to its stable economy and supply of skilled laborers.

This study provided reasonable evidences of how the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could affect the city development and how the skewed industrial structure could weaken the city economy. However, it would be not enough to generalize everything with only Masan and Changwon C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is study with following researches.

Keywords : light industry, heavy-chemical industry, industrial
city, planned city

Student Number : 2015-24804